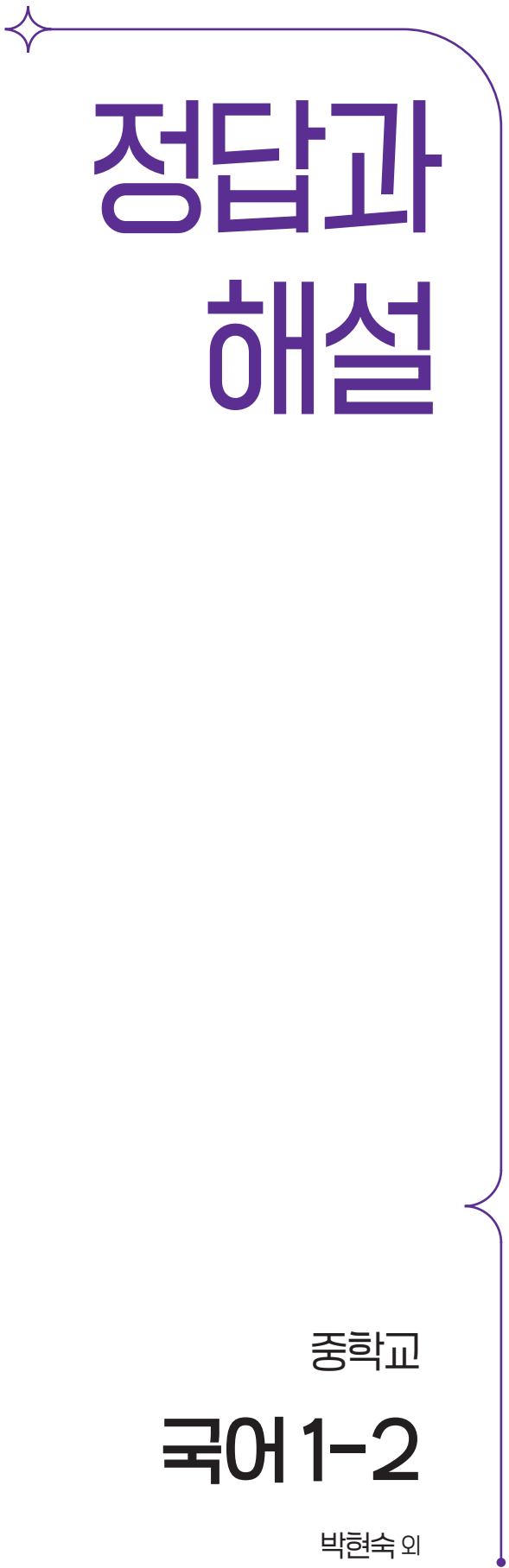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2

박현숙 외

1 마음을 비추는 글

01 문학과 성장

제재

본책 10~27쪽

1 ③ 2 ② 3 ⑤ 4 ① 5 ⑤ 6 ③ 7 ④
8 ④ 9 ① 10 ④ 11 ⑤ 12 집에 엄마가 없다는 사
실을 숨기기 위해서 13 ③ 14 ③ 15 ③ 16 자전거
가게, 세면대(배수구) 17 ④ 18 ① 19 ② 20 ②
21 ② 22 ④ 23 세면대를 고치는 동안 한아가 곁에서 도
움을 주려고 한 것 24 ③ 25 ③ 26 ② 27 ③
28 ⑤ 29 ④ 30 ② 31 ③ 32 ①

- 1 (나)에서 '나'는 자신이 여덟 살 때에는 밥을 알아서 차려 먹고 한아에게 분유를 타 먹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와 달리 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엄마가 한아를 아기 취급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가)에서 '나'는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자기 맘대로 살 수 있고,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현금 10만 원이 있어 팔자가 늘어졌다고 생각하였다.

② (나)에서 '나'는 여덟 살 때 자기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것은 물론이고, 한아에게 분유를 타 먹이고 우유병을 물리고 놀아 주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한아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뒤를 길게 늘어 '나'를 부른다고 하였다.

- 2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서(ㄱ) '나'와 한아는 그동안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보았고, 이제는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ㄴ).

- 3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화장실 전등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자 '나'는 당황하고 있다.

- 4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머리를 짧게 잘랐다가 친구들로부터 얼굴이 엄청 커 보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엄마의 구박에도 다시는 머리를 뭉뚱뚱 자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엄마의 권유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③ '나'는 엄마가 한아의 머리를 잘라 주려는 것을 막고, 한아가 사람들 눈에 뵈 수 있도록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땁거나 핀을 꽂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띠를 돌려 주었다.

④, 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쿵쿵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애로 친구들에게 기억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으나, 얼굴이 커 보인다는 말에 상처를 받은 이후 머리를 기르고 있다.

- 5 '나'는 한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고 하며, 엄마가 한아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였다.

- 6 (사)의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했다.'를 통해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바람에 세면대 배수구가 막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7 한성 설비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나'가 피같은 돈을 왕창 뜯긴 기분이 들어 얼굴을 찌푸리자,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에게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나무라듯 말한다. 즉, 한성 설비의 기본 출장비 5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은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아니라 '나'이다.

| 오답 풀이 | ① (아)에서 '나'는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만년 철물점에 들러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보았다.

② (아)에서 만년 철물점은 경빈이 할머니네 가게로, 경빈이는 한아의 어린이집 친구라고 하였다.

③ (자)에서 한성 설비는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데라고 하였다.

⑤ (자)~(차)에서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나'를 따라 가게 밖까지 나와,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라고 말하였다.

- 8 (아)의 '만년 철물점, 볼 때마다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센 의지로 장사를 하나 싶었다.'에서 '나'가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할머니의 굳센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 9 '나'는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만년 철물점에 들러, 세면대의 물이 안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사러 온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③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를 걱정하며 가게 밖까지 따라 나와 관리 사무소에 가면 세면대를 봐 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관리 사무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할머니에게 관리 사무소의 위치를 물어보지 않았다.

④, ⑤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한성 설비의 출장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묻지 않았고, 한성 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이를 통해 '나'가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 10 '나'는 평소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막힌 세면대를 봐 주는 것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관리 사무소에 말을 잘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막힌 세면대를 고치고 싶어 한다.

11 엄마는 ‘나’에게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 주지 말고(㉡), 누구세요? 묻지도 말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친구와 집에서 놀 때에는 엄마의 허락을 먼저 받고 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2 ‘나’는 집에 엄마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엄마가 여러 번 당부한 일이 떠올라, 집에 동생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13 ‘나’는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들길까 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행여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따라올까 봐 불안해서 가슴이 쿵쿵 뛰었다.

14 한아는 외숙모가 해 준 김치찌개 안에 있는 콩치를 세 토막이나 먹었다고 하였으므로, 한아가 저녁을 먹으며 밥투정을 해서 외숙모를 힘들게 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5 외숙모는 만삭의 몸으로 외삼촌 없이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다. ‘나’는 이러한 외숙모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별일 없는지 묻는 외숙모에게 아무 일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어른스러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6 토요일 아침, ‘나’는 자전거 가게 사장님의 공구 상자에서 자신이 찾는 물건을 빌리기 위해 자전거 가게에 갔다. 앞에서 ‘나’가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만년 철물점, 관리 사무소에 갔던 것을 볼 때, 그 물건은 막힌 세면대를 뚫을 때 필요한 도구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 ‘나’는 한아의 근심 어린 눈동자를 보고, 한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세면대를 직접 고치기로 결심한 후 자전거 가게에 가서 멍키 스패너를 빌렸다. 따라서 ‘나’가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아를 설득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 | 오답 풀이 ①, ③ ‘나’가 연필깎이가 고장 났을 때 고쳐 줬던 일을 언급하며 세면대도 언니가 고치겠다고 하자 한아가 비로소 웃었다고 하였으므로, 한아는 ‘나’가 세면대를 고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아는 물이 거의 빠지지 않은 세면대를 보며 ‘나’에게 근심 가득한 눈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⑤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 찾아보며 자신이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18 (거)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근심 어린 눈으로 보는 한아에게 언니가 고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므로,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언장담’이 적절하다.

1 | 오답 풀이 ② ‘몹시 두려워서 발발 떨며 조심함.’을 뜻한다.

③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라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④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이라는 뜻으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나타나서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라는 뜻으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뒤바뀐다는 의미이다.

19 <보기>에서 ‘나’는 엄마가 집에 돌아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에서 ‘나’는 한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나’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환된 것이다.

20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 개 찾아보며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즉,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해당한다.

21 ‘나’는 동영상에서 본 대로 세면대를 뚫기 위해 세면대 아래 주 그리고 앉았다가 구부러진 배수관을 발견하고, 비밀 동굴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좀 놀라운 기분을 느꼈다.

22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 번 보며 과정을 익힌 후(㉢), 구부러진 배수관 양쪽에 있는 너트를 멍키 스패너를 이용해 풀어서 배수관을 분리하였다(㉣). 그다음 철사 옷걸이를 꼬챙이처럼 만들어 배수관에 밀어 넣어서 배수관을 막고 있던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세면대 마개를 빼서 물 빠지는 구멍에 걸린 머리카락도 제거하였다(㉦). 이후 위쪽 마개를 제자리에 꽂아 반대로 돌리고, 아래쪽 구부러진 관도 원래 모양대로 맞춘 다음 멍키 스패너로 너트를 다시 조인 후(㉧)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였다.

23 ‘나’는 세면대를 뚫으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자 한아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지만, 한아는 코를 쥔 채 고개를 젓고 곁에서 ‘나’를 돕는다. 이를 통해 ‘나’는 아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한아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24 ‘나’가 한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은 배수관을 분리하며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즉 한아에 대한 배려심이 드러나는 행동일 뿐 ‘나’가 한아를 귀찮게 여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5 <보기>에서 ‘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이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할머니의 의지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세면대 고치는 일에 대한 조언을 얻고 전구 가는 법을 배우는 등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든든하고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만년 철물점이 오래 이 자리에 계속 있기를 바란다.

26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은 후 자신감을 얻은 ‘나’는 화장실 전 등불이 안 들어오는 문제도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27 엄마는 한아를 아직 어린아이로만 생각하여 유리컵을 깨뜨려 다칠까 봐 한아에게 유리컵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면대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의 곁을 지킨 한아가 유리컵을 쓸 만큼 자랐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한아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스를 유리컵에 따라 주었다.

28 '나'와 한아는 막힌 세면대와 화장실 전등불 문제를 해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건배를 한 것이다. '나'와 한아가 세면대를 뚫으며 다루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화해를 위해 건배를 한 것도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요구르트를 꺼내 '나'와 한아에게 건넨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행동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②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철물점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고, 엄마도 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③ 한아 목욕을 시키고 머리로 감기는 모습에서 '나'가 한아를 자상하게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한아는 막힌 세면대를 뚫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좋아하는 반찬을 모두 꺼내 특별한 저녁을 차려 먹었다.

29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면대를 뚫고 전구를 간 것이 아니라 한아의 근심을 덜어 주려고 세면대를 고치기로 결심했고, 이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어 전구도 바꿔 끼웠다.

| 오답 풀이 | ① 세면대를 고치면서 수동적이었던 '나'가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② 멍키 스패너를 쥐고 뭐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에서 '나'가 앞으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나'는 문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며 '잘했어. 김한경.'이라고 자신을 칭찬하고 있다.

30 '멍키 스패너'로 막힌 세면대를 고친 경험은 '나'에게 뿌듯함과 성취감을 주고(ㄴ),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ㄷ). 또한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ㄹ).

| 오답 풀이 | ㄱ. 멍키 스패너로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멍키 스패너가 엄마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준 도구라고 볼 수 없다.

ㄴ.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멍키 스패너를 빌려 주거나 사용 방법을 알려 준 것이 아니고, 멍키 스패너로 인해 '나'가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니다.

31 '나'는 토요일에 막힌 세면대를 뚫은 후, 화장실 전등불도 갈기 위해 만년 철물점에 전구를 사러 갔다가 벽에 걸린 스패너들을 보았다(㉠). 그리고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스패너의 가격을 물어보았다(㉡). 그날 밤, 엄마의 전화를 받고(㉢), 옆에서 한아가 쉼 쉬며 자는 소리를 들은 후(㉣) '나'도 잠이 쏟아져서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32 ㉠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자신을 칭찬하며 뿌듯해하고 있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28~33쪽

- 01 ⑤ 02 ④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7 ②
08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09 ④ 10 ② 11 ② 12 ② 13 ①
14 ③ 15 (1) 화장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일 (2) 자신감
16 ② 17 ④ 18 ⑤ 19 오랫동안 곁에서 든든한 이웃으로 남아 주기를 바란다. 20 ② 21 ③ 22 ② 23 다른 존재에 기대어 살아간다. / 다른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24 ④

01 이 글은 소설이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는 전기문이나 자서전, 수필 등과 다르게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지만, 글쓴이가 상상하여 꾸며 쓰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허구성을 전제로 한다.

| 오답 풀이 | ① 시나리오, ② 기사문, ③ 시, ④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02 '나'는 엄마가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준 10만 원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보다는 평소 갖고 싶었던 립밤, 핸드폰 케이스, 3천 원이 넘는 편의점 과자 등을 살 생각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라고 당부하는 말에서 엄마가 한아를 야기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나'는 한아를 옆구리에 붙은 흑이라고 표현하면서 엄마가 없는 동안 한아를 돌보아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 '나'는 엄마가 없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팔자가 늘어졌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한아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뒤를 길게 늘어 '나'를 부른다고 하였으므로, 한아가 '나'를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는 데다가 세면대 물도 안 내려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는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엮힌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우물에 가서 송충 찾는다'는 성격이 매우 급하거나 일을 하는데 매우 조급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이리를 피하니 범이 앞을 막는다'는 어려운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어떤 것에 크게 한번 놀라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을 낸다는 뜻이다.

04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를 통해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 물이 막힌 문제 상황이 엄마가 돌아와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05 세면대 배수구가 막히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①) '나'는 세면대 뚫는 방법을 묻기 위해 만년 철물점에 들렀다(②).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에게 한성 설비에 가면 세면대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지만(③), '나'는 수리비 외에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에 놀란다(④). 결국 '나'는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어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다.

06 (나)에서 '나'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하는 모습을 통해 '나'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에게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 주는 한성 설비에 가 보라고 했다.

②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에 얼굴을 찌푸리는 '나'를 보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에 대해 나무라듯 말하였다.

④ (가)와 (나)에서 세면대가 막힌 까닭은 세면대에서 '나'와 한아가 머리를 감아 머리카락이 배수구 구멍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⑤ '나'가 마음에 걸려 가게 밖까지 따라 나와 관리 사무소에 한 번 가 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때,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따뜻한 성품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07 '나'는 만년 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에 천년만년 철물점을 하겠다는 주인 할머니의 굳센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철물점을 그리 오랫동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08 엄마는 집을 비우며 '나'에게 어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러한 엄마의 당부를 떠올리고, 한아와 둘만 있는 집에 낯선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09 '나'는 한아의 근심 어린 눈빛을 보고 동생의 근심을 털어 주기 위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0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아주 약간만 가여운 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에서 집에 엄마가 없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 당황하고 있다. 결국 '나'는 관리 사무소에 세면대를 뚫어 달라고 말하면, 낯선 사람이 '나'와 한아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관리 사무소를 나오며 ㉡에서 행여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따라오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다.

11 '나'는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엄마가 없는 것을 들켜봐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돌아온다(가). 그날 밤 '나'는 한아의 근심 어린 눈을 보고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하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빌리러 자전거 가게 사장님을 찾아간다(나).

12 '나'는 동영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발견하고, 동영상에 나온 도구인 멍키 스패너를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빌렸다. '나'가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패너의 사용법을 배웠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가족의 보호만 받던 한아는 스스로 막힌 세면대를 뚫는 언니를 옆에서 도우면서 문제가 해결되자 뿌듯함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한아도 남에게 의지만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14 ㉠, ㉡, ㉢, ㉣은 모두 배수구를 막고 있던 머리카락 뭉치를 가리키고, ㉤은 어두운 세면대 아래를 가리킨다.

15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고 자신감을 얻어 화장실에 남은 문제인 화장실 전구도 같이 끼우려고 하고 있다.

16 '나'는 세면대를 고칠 때 옆에서 의리를 지키며 함께한 한아도 유리컵으로 주스를 먹을 때의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유리컵에 주스를 따라 주었다.

17 (다)에서 '나'는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18 이 소설은 문제 해결 의지, 어려움을 헤쳐가려는 의지, 도전 의식 등의 가치를 전달한다. 운동회의 모든 종목에 출전 신청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고, 앞으로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소설에 나타난 바람직한 삶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을 읽고 가치 내면화하기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

감정 이입과
공감

- 글쓴이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기
-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상상하며 몰입하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 글에 담긴 내용, 가치 등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기
-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고민하기

19 '나'는 화장실 전구를 갈기 위해 만난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엄마도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만난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찾는다는 것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나'는 할머니가 든든하고 소중한 이웃임을 깨달으며, 할머니가 오랫동안 철물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20 '나'는 멍키 스페너로 막힌 세면대를 뚫은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며,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멍키 스페너는 이러한 '나'의 내적 성장을 돕는 도구이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1 이 시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공기에 기대어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 이상의 색채를 대비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공기에 기대어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깨달은 점을 인생에 적용하여 사람들도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치고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1연에서는 나무의 모습, 2~3연에서는 인간의 삶으로 초점이 변하고 있다.

④ 3연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치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말하는 이의 고조된 정서를 강조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⑤ 독백적 어조로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치며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비스듬히」 개관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성격	서정적, 성찰적
제재	나무와 사람		
주제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면서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특징	• 나무와 사람을 빗대어 표현함. •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백조로 표현함.		

22 이 시는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②는 좌절하지 않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겨 내는 것이므로, 이 시에서 전하려는 '누군가를 받쳐 주거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23 이 시에서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공기에 기대어 서 있듯이 우리도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나무'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하고, 누군가가 기대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4 ㉠은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난도 읽 심화문제

본책 34~35쪽

01 ② 02 (가)에서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지만 고치려고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나, (마)에서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기 위해 동영상을 찾아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03 엄마 없이 '나'와 한아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아저씨가 뒤따라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불안했기 때문이다. 04 ① 05 ③ 06 ④ 07 ㉠은 멍키 스페너이다. 멍키 스페너는 '나'의 힘을 몇 배로 세지게 하는 존재이자,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01 (라)에서 '나'는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외숙모를 격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집에 벌일 없냐고 묻는 외숙모의 말에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나'가 외숙모를 믿지 못하여 문제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02 (가)에서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고장 났음에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두고 불일을 보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마)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의 상황과 '나'가 이에 대처하는 태도를 밝혀 썼다.	☐
(마)의 상황과 '나'가 이에 대처하는 태도를 밝혀 썼다.	☐

03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와 한아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엄마랑 같이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혹시나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뒤따라올까 봐 걱정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쿵쿵 뛰었다고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바르게 썼다.	☐
㉠에 나타난 '나'의 상황과 심리를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4 ㉠은 화장실 전등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긴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를 표현하는 한자 성어로는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전전긍긍(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한다는 뜻이다.

㉢ ‘일석이조(一石二鳥)’는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 ‘동병상련(同病相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05 (가)~(다)에서 ‘나’는 한아와 함께 막힌 세면대를 뚫고 화장실 전구를 갈기 위해 만난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라)에서는 나무가 공기에 기대어 서 있듯 인간도 서로가 서로를 받쳐 주며 함께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라)는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 (라)에서 생명은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였을 뿐, 생명을 지닌 존재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 (라)에서는 같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라)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의 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자연이 서로에게 기대어 공존하듯이 사람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06 이 시에서는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대다.’ 또는 ‘남의 힘에 의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기대다’를 서로를 받쳐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스듬히’는 바로잡아야 할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07 (다)에서 ‘나’는 멍키 스페너를 꼭 쥐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나’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이 멍키 스페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는 멍키 스페너로 세면대를 고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이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을 받았고,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가리키는 것을 정확하게 썼다.	☐
㉠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탕으로 ‘나’가 ㉠을 갖고 싶어 하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2 진술한 글 쓰기

본책 38~49쪽

활동 학습

- 1 ㉣ 2 ㉤ 3 ㉤ 4 ㉢ 5 ㉢ 6 ㉤ 7 ㉣
8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하며 글감을 구체화할 수 있다. 9 ㉤ 10 ㉠ 11 ㉣ 12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13 ㉣ 14 ㉡
15 ㉠ 16 ㉢ 17 ㉤ 18 운송장 19 ㉢ 20 ㉠
21 부족함(어색함) 부분, 완성도 22 ㉠ 23 ㉣

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생각이나 깨달음,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다.

| 오답 풀이 | ㉠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 것은 소설이다.

㉢ 자신의 정서나 생각,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은 시이다.

㉤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다.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이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떠올린 경험 중에서 글감을 정한다.

| 오답 풀이 | ㉠ 글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여 글로 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글의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등을 점검하는 것은 ‘고쳐쓰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경험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 쓸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3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이나 기분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글감을 선택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 ㉢ 다양한 경험에서 느낀 여러 가지 정서를 글감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일상적인 일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의 경험을 글감으로 선택해야 한다.

4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서식처가 줄어드는 일은 자신이 겪은 인상 깊었던 경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할 때에는 글로 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고(ㄱ), 그때의 생각과 감정, 느낌 등을 솔직하게 드러낸다(ㄴ).

- 6 지원은 글로 쓸 경험을 한 때와 장소,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 그때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 독자에게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 7 지원이 글로 표현할 경험을 구체화하며 떠올린 내용 중,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힘들게 일하는 아빠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8 <보기>는 글감으로 정한 경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그물처럼 연결하고 엮으면서 정리할 수 있다.
- 9 개요를 작성한 후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요를 수정할 수 있다.
- 10 '처음 - 중간 - 끝'은 글의 일반적인 구조일 뿐,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원인과 결과, 사건과 깨달음 등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순서로 내용을 배열할 수 있다.
- 11 개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원은 글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 '택배와 아빠'라는 제목을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로 바꾸었다(ㄴ). 그리고 '처음'에서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나타내기 위해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 인용하기로 계획하였다(ㄷ).
- | 오답 풀이 |** ㄱ. '중간'에서 내용을 삭제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ㄷ. '끝'에서는 탑차를 끌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을 뿐,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지 않다.
- 12 지원은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참신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는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13 글쓴이는 비가 내리는 어느 초여름 날에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말하고 있을 뿐, 글쓴이가 아빠를 도와 배송할 물건을 날랐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4 ㉠은 '나'와 아빠의 대화 장면을 직접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보기>에 비해 대화를 나누었던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나타내고 있다.
- 15 ㉡는 아빠의 하루를 보니 살이 배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아빠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는 아빠의 하루, 즉 운송장을 입력하며 아빠의 일을 돕는 '나'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 ㉢ ㉢는 '나'가 아빠의 하루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하루를 전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 ㉣ ㉣는 '나'가 아빠의 하루를 직접 보게 된 경험의 구체적인 때를 밝히고 있다.
- ㉤ ㉤는 그날따라 주소를 잘못 찾고 비를 맞으며 차 주변으로 되돌아오는 아빠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 16 아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의 모습을 '나'가 비유적으로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17 (사)에서 '나'의 동생들이 산타를 기다리듯이 사람들은 물건을 배달해 주는 아빠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18 '나'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은 '운송장'을 보며 고된 하루를 보내는 아빠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나'가 운송장을 교복에 대고 말리면서 운송장이 힘없이 펴려거리지 말고 뻗뻗하게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19 '나'는 젖어서 찢어질 것만 같은 운송장을 교복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말리면서 운송장이 힘없이 펴려거리지 말고 뻗뻗하게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힘들게 일하는 아빠의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원하는 '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며,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20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과 표현뿐만 아니라 제목의 적절성도 검토해야 한다.

21 고쳐쓰기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다듬는 과정으로, 고쳐쓰기를 통해서 글의 구성과 표현,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어색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22 지원이 고쳐 쓴 글에서 아빠가 전하는 물건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감 나게 표현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23 지원은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아빠는 '산타', 탑차는 '루돌프', 택배 물건은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에 대한 아빠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강조하고(ㄴ),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ㄷ).

| 오답 풀이 | ㄱ.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ㄷ. 아빠와 '나'의 대화를 추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물건을 전해 준다. 06 ④ 07 ③ 08 ④ 09 (1) 빵 (2) 운송장 10 ③ 11 ④ 12 ④ 13 ② 14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하여 아빠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15 ②

01 '당시에 내가 한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아빠와 있었던 일이다.

② 어느 초여름 비 오는 날,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④ 아빠가 비를 맞으면서도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⑤ 아빠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전해 주는 아빠가 산타처럼 느껴졌다.

02 (나)는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개요로, 경험을 구체화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 쓸 내용을 조직한 것이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과정 중 이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03 글쓴이는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부분에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나타내기 위해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ㄴ), '중간' 부분에서 아빠에게 느낀 '나'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아빠가 배달한 물건의 젖은 운송장을 '나'의 교복에 대고 말리는 내용을 추가하였다(ㄷ). 그리고 '끝' 부분에서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참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탐자를 끌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기로 하였다(ㄹ).

▶ 오답 풀이 | ㄱ. 아빠의 직업이 잘 드러나는 '택배와 아빠'라는 제목을, 글에 담긴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었다.

ㄷ. '처음' 부분에서 아빠의 일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계획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4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택배원으로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지켜본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③ (라)에서 아빠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대하는 아빠의 진심을 드러내며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서 '나'와 아빠의 대화 장면을 직접 인용하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⑤ (나)에서 '나는 항상 열두 자리의 숫자만을 골라 입력하면서, '하루에 200장이나 되는 운송장' 등 아빠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빠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05 (라)에서 '나'의 동생들이 선물을 주러 오는 산타를 기다리듯 사람들이 물건을 배달해 주는 아빠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므로, 아빠와 산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전해 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 '아빠의 몸 어딘가에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에는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07 ㉡ '아빠의 하루 속에는 여러 글자와 숫자가 뻘뻘하게 들어 있었다.'에서 '아빠의 하루'는 아빠가 배달한 물건의 운송장을 가리킨다. 즉 ㉡는 운송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아빠의 고된 하루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08 아빠는 물건을 배송해야 할 주소를 한 번에 정확히 찾지 못하고, 그날따라 자꾸만 주소를 잘못 찾아서 비를 맞으며 몇 번이나 차 주변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였다.

09 배달을 마치고 차에 돌아와 '나'에게 빵을 건네주는 아빠의 모습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 주는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다(㉢). '나'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은 운송장을 '아빠의 하루 중 한 조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운송장'이 아빠의 고된 하루를 드러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10 ㉤ '아빠를 걱정하는 내 마음'은 비가 계속 와서 아빠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비를 맞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11 '나'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은 운송장을 보면서 아빠의 고단함을 느끼고, 교복 상의 속에 집어넣어 운송장이 뻗뻗하고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나'가 운송장의 열두 자리 숫자를 입력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한다고 볼 수 없다.

12 (나)는 (가)보다 더 다양한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빠의 모습과 그러한 아빠에 대한 '나'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독자에게 택배원들의 수고에 감사하자고 당부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3 (나)에서 '운송장은 저마다 개성 있는 필체로 적힌 단 하나뿐인 지도'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지도'의 원관념은 전화가 아니라 '운송장'이다.

14 ㉠은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물건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5 제시된 글은 아빠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로, ㉠에서는 자신이 보내 준 그림을 보고 아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했던 마음을 표현하였고, ㉡에서는 두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오답 풀이 | ㉠ 아빠의 근황을 설명하고 있다.

㉢ 아들에게 앞으로 그림과 편지를 부지런히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 자신이 그린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난도 **심화 문제**

본책 54~55쪽

- 01 ㉡ 02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03 ㉠ 04 ㉤ 05 ㉢ 06 ㉢ 07 ㉢
08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01 (나)에서 아빠가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택배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ㄷ), '나'는 그러한 아빠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ㄱ)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나. 송장 번호에 물건의 현재 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송장 번호와 주소를 바탕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ㄷ.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의 전문성을 '택배와 관련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몸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능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02 '아빠의 매일매일'을 '12월 25일'에 비유하면서, 아빠는 매일 누군가의 산타가 되어 주기에 소중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와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을 (다)의 앞부분에 추가한 까닭을 바르게 썼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3 [A]는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가 200개의 운송장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아빠와 '나'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나타내고 있다.

04 아빠의 하루를 돕는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고, 아빠의 오늘을 물기 하나 없이 살이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나'는 아빠의 하루가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05 이 글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생각이나 깨달음,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허구적인 내용을 꾸며 쓰는 것은 소설이다.

| 오답 풀이 | ㉠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순서로 자유롭게 내용을 배열할 수 있다.

㉣ 글쓰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 독자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을 읽으며 감동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06 (다)에서 아빠가 그날따라 자꾸만 주소를 잘못 찾고 길을 헤매었다고 하였으나,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7 ㉠은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보면서 '나'가 느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08 '나'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한 젖은 운송장을 조용히 건네받아 교복 상의에 대고 말리고 있다. 운송장이 힘없이 펄럭거리지 말고 뻗뻗하고 구김 없이 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드러나는 아빠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르게 썼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56~63쪽

- 01 ㉤ 02 흑 03 ㉡ 04 화장실 전등불이 안 켜지고 세면대가 막힌 문제 05 ㉤ 06 ㉡ 07 큰돈을 들이지 않고 관리 사무소의 도움으로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것 08 ㉤ 09 ㉠
10 ㉣ 11 ㉠ 12 동생 한아의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13 ㉢ 14 ㉡ 15 ㉡ 16 ㉠
17 유리컵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젖은 운송장을 교복 상의에 대고 말렸다. 28 ㉡ 29 ㉢

01 (나)에서 '나'는 한아가 "언니이이이." 하고 뒤를 길게 늘어 부르자 한아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속자는 척할까 하다가 일어나 화장실 앞으로 갔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나'는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 한아와 둘이서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다.'에서 한아의 나이가 여덟 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며,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10만 원을 주고 갔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나'는 그 나이 때 알아서 밥을 차려 먹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도 타 주었던 자신과 달리, 한아가 아직까지 아기 취급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④ (다)의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에서 '나'가 한아에게 세면대 배수구 마개 사용 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가)에서 '나'는 동생 한아를 '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한아는 '나'가 알려 준 대로 세면대 배수구 마개를 눌렀지만 세면대 물이 내려가지 않자 "언니이이이." 하고 뒤를 길게 늘어 '나'를 불렀다.

04 반찬을 아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힌 상황이다.

05 주인공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타난 부분만 발췌하여 읽으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06 '나'는 관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찾아갔으나, 세면대를 고치려면 자신과 동생 단둘이 있는 집에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세면대가 고장 났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도움 받는 것을 포기하고 관리 사무소를 나왔다. 엄마가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훨씬 더 앞서 일어난 일로, 엄마가 집을 비우기 전에 '나'에게 당부한 말이다.

07 '나'는 말을 잘해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막힌 세면대를 고치고 싶어서 가여운 척을 하려고 했다.

08 '나'는 집에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서 집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09 (다)의 '어젯밤'에서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는 역순형적 구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다)에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나)와 (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멍키 스페너를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빌리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경험을 통해 주인공인 '나'의 성장이 나타난다.

③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리는 등 막힌 세면대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집에 발생한 문제를 말하고 싶어 하는 한아를 말리고, 외숙모를 배려하여 아무 일도 없다고 답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⑤ 세면대가 막히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다루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 (가)에서 '나'는 만삭인 몸으로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외숙모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별일 없냐고 묻는 외숙모의 말에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나'의 어른스러운 면모가 드러난다.

11 '나'는 보란 듯이 양치물을 바닥에 뱉 뱉음으로써 한아의 걱정을 덜어 주는 동시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12 <보기>에서 '나'는 문제가 발생하자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나'를 뺀히 올려다보며 여전히 물이 넘실대고 있는 세면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동생 한아의 근심 어린 눈동자를 보고, 세면대를 스스로 고칠 결심을 하게 된다.

13 (다)에서 '나'는 세면대 위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전처럼 생긴 세면대 마개를 한쪽으로 돌려 빼냈다고 하였다. 즉, 마개에 있는 너트를 풀어서 마개를 분리한 것이 아니다.

14 '나'는 처음에는 한아를 배려하여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아가 의리 있게 옆에 있어 주자 한아가 할 만한 일을 시켜 자신을 돕게 하였다.

15 ㉠에서 '나'는 한아도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일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한아가 더 이상 자신이 돌봐야 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16 (다)에서 '나'는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였다.

17 엄마는 한아를 어리게만 봐서 절대로 유리컵을 주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한아도 유리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마시는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한아에게 유리컵을 주었다. 즉, '유리컵'은 동생 한아에 대한 엄마와 '나'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18 '나'가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물점에 가서 화장실 전구를 사고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전구 가는 법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 '나머지 문제'는 화장실 전등불이 켜지지 않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9 ㉠에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을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반면, ㉡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과 ㉡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엄마가 오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

② ㉠과 ㉡ 모두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며, ㉡에서 아쉬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은 엄마가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날을 의미하지만, ㉡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과 ㉡ 모두 '나'가 한아와 단둘이 지내야 할 기간이다.

20 ㉠은 '내용 생성하기', ㉡은 '고쳐쓰기', ㉢은 '계획하기', ㉣은 '내용 조직하기', ㉤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1 글감으로 정한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지켜본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22 글로 쓸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가 아니라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또한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모두 담기보다는 글을 담을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 풀이 | ①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③ 개요를 작성하면서 표현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두면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더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④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는 과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순서로 내용을 배치해야 한다.

⑤ 개요를 작성한 후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3 <보기>와 같이 아빠를 산타에 비유하면 참신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24 이 글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을 쓴 후에는 경험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는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는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이나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냈는지 등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글을 쓴 후 고쳐쓰기 단계를 생략하면 안 된다.

25 이 글에서 작업 순서에 따라 택배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마)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아빠를 산타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와 (라)에서 '나'가 아빠와 대화하는 장면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나)에서 '내가 아빠의 하루를 직접 본 것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다.'라고 하여 글감으로 정한 일이 있었던 때를 밝히고 있다.

⑤ (다)에서 '운송장'은 아빠의 고된 하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로, '나'는 운송장이 힘없이 펴져서 말고 뺏뺏하고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면서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6 (나)에서 아빠는 자신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자가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상자를 몸 가까이 바짝 들었다. 이를 통해 아빠가 배달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다)에서 '나'는 젖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은 운송장을 조용히 건네받으며, 비 오는 날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젖은 운송장을 교복 상의에 대고 말리면서, 운송장이 보송보송해지는 것만으로도 힘이 펴져서 말고 뺏뺏하고 구김 없이 퍼지기를 바라고 있다.

28 (나)에서 '나'는 아빠가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함과 안타까움, 걱정스러운 등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라)에서는 송장 번호와 주소만으로 모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빠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을 느꼈다.

29 <보기>와 (마)는 모두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하여 끝까지 책임감 있게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와 (마)는 모두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아빠가 산타와 다른 점으로 아빠는 언제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에서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아빠와 산타의 공통점만 나타낼 뿐, 아빠와 산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⑤ 아빠를 산타에 비유한 데에서 그친 (마)와 달리, <보기>에서는 아빠의 매일매일을 12월 25일에,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을 선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다채로운 단어

01 단어의 짜임과 새말

활동 학습

본책 68~81쪽

- 1 ② 2 ② 3 영미 / 가 / 친구 / 옆 / 에 / 앉- / -앉- / -다
4 ④ 5 ⑤ 6 ③ 7 ② 8 좋-, 싫- 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① 14 ⑤ 15 ④ 16 ④
17 '어떤 일의 끝이 되는 판'을 의미한다. 18 ③ 19 ④
20 ④ 21 ③ 22 ③ 23 ② 24 ④

- 1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ㄷ),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다(ㄱ). 또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한 단어를 이룬다(ㄴ).

| 오답 풀이 | 나. 조사를 제외한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ㄷ.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은 형태소이다.

- 2 주어진 문장을 단어로 분석하면 '꽃과일 / 이 / 매우 / 시다'이고, 형태소로 분석하면 '꽃- / 과일 / 이 / 매우 / 시- / -다'이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는 모두 4개이다.

③ '이'는 조사로,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나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단어에 포함된다.

④ '시다'는 1개의 단어이지만 '시-'와 '-다'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⑤ '꽃과일'은 1개의 단어이지만 '꽃-', '과일'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3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영미 / 가 / 친구 / 옆 / 에 / 앉- / -앉- / -다'이다.

- 4 ④의 '놀았다'는 형태소 '놀- + -았- + -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의 개수는 3개이다. 나머지는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 오답 풀이 | ① '달다'는 '달- + -다'로 분석할 수 있다.

② '첫눈'은 '첫 + 눈'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③ '물안개'는 '물 + 안개'로 분석할 수 있다.

⑤ '가을바람'은 '가을 + 바람'으로 분석할 수 있다.

- 5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어제 / 준수 / 가 / 꽃- / 사과 / 를 / 먹- / -었- / -다'이다.

- 6 '밤나무'는 어근 '밤'과 어근 '나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모두 홀로 쓰일 수 있으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뛰다'는 '뛰- + -다'로 나눌 수 있고,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② '햇과일'은 '햇- + 과일'로 나눌 수 있고, '햇-'은 의존 형태소, '과일'은 자립 형태소이다.

④ '겁쟁이'는 '겁 + -쟁이'로 나눌 수 있고, '겁'은 자립 형태소, '-쟁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⑤ '잔소리꾼'은 '잔- + 소리 + -꾼'으로 나눌 수 있고, '잔-'과 '-꾼'은 의존 형태소, '소리'는 자립 형태소이다.

- 7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나 / 는 / 어제 / 스파게티 / 를 / 만들- / -었- / -다'이다. 이 중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는 '나', '어제', '스파게티'로 3개이다.

- 8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나 / 는 / 국어 / 가 / 제일 / 좋- / -고 / 영서 / 는 / 국어 / 가 / 제일 / 싫- / -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뜻을 지닌 실질 형태소인 '나', '국어', '제일', '좋-', '영서', '국어', '제일', '싫-' 중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는 '좋-'과 '싫-'이다.

- 9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접사는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해야만 단어를 이룰 수 있다.

- 10 '감나무(감 + 나무)', '책가방(책 + 가방)'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햇과일(햇- + 과일)', '닭시퐁(닭시 + -퐁)'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모두 복합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11 '맨주먹'은 접사 '맨-'과 어근 '주먹'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12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의 '날-', '꽃-', '-개'는 모두 접사이므로 '날고기', '꽃사랑', '지우개'는 모두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눈사람(눈 + 사람)', '금도끼(금 + 도끼)', '밤나무(밤 + 나무)'는 모두 합성어이다.

② '방귀쟁이(방귀 + -쟁이)', '치숫다(치- + 숫- + -다)'는 파생어, '손발(손 + 발)'은 합성어이다.

④ '한여름(한- + 여름)', '햇수고(햇- + 수고)'는 파생어, '물걸레(물 + 걸레)'는 합성어이다.

⑤ '바늘방석(바늘 + 방석)'은 합성어, '욕심(욕심 + -쟁이)', '먹보(먹- + -보)'는 파생어이다.

- 13 '물통'의 '물'과 '통', '새벽달'의 '새벽'과 '달', '돌아가다'의 '돌-'과 '가-', '뛰어내리다'의 '뛰-'와 '내리-'는 모두 어근으로, 제시된 단어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④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물통', '새벽달'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합성어이고, '돌아가다', '뛰어내리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⑤ '물통', '새벽달'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원래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돌아가다', '뛰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 연결 어미 '-아/어-'가 함께 결합하였다.

14 '휘감다'는 접사 '휘-'와 어근 '감-'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고집쟁이'는 어근 '고집'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① '휘감다'와 '고집쟁이'는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복합어이다.

②, ③, ④ '휘감다'의 '휘-'는 접사로,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 '감-'과 결합하여 '매우 심하게'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집쟁이'의 '-쟁이'는 접사로,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 '고집'과 결합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15 '늑더위'는 접사 '늑-'과 어근 '더위'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나머지 모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① '꽃비'는 어근 '꽃'과 어근 '비'가 결합한 합성어로, '비가 꽃잎처럼 가볍게 흩뿌리듯이 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비구름'은 어근 '비'와 어근 '구름'이 결합한 합성어로,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구름'이라는 뜻이다.

③ '눈보라'는 어근 '눈'과 어근 '보라'가 결합한 합성어로, '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이라는 뜻이다.

⑤ '황소바람'은 어근 '황소'와 어근 '바람'이 결합한 합성어로, '좁은 틈으로 세게 불어 드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16 '짜라기눈'은 '부스러진 쌀알'을 가리키는 '짜라기'와 '눈'이 결합한 말이므로, '빻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을 의미한다.

17 <보기>를 통해 접사 '막-'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막판'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막-'과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판'이 결합하여 '어떤 일의 끝이 되는 판'을 의미한다.

18 단어의 짜임을 알면 단어의 형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여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짜임을 안다고 해서 모든 품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 <보기>의 '노래방(노래 + 방)', '꽃미남(꽃 + 미남)', '반려동물(반려 + 동물)'은 모두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 중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보기>와 형성 방법이 같은 단어는 '꿀피부(꿀 + 피부)'이다.

▶ 오답 풀이 ①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음, 또는 그렇게 먹는 밥'으로, 일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② '강추'는 '강력 추천'으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③ '득템'은 '득(得)'과 '아이템(item)'의 일부인 '템'을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⑤ '배낭족'은 어근 '배낭'에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20 '댓글'은 외국어 '리플'을 우리말로 순화한 새말이다.

▶ 오답 풀이 ① '네티켓'은 '네트워크 + 에티켓'으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② '친추'는 '친구 + 추가'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③ '쫄볶이'는 '쫄면 + 떡볶이'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⑤ '채팅방'은 '채팅 + 방'으로, 우리말과 외래어를 합성의 방법으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21 <보기>의 '아점(아침 + 점심)',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하다)',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는 모두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22 '오픈 스페이스'는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미를 알 수 없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낯선 외국어의 정확한 뜻을 살려 '열린 심터'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로 다듬은 것은 아니다.

23 '언박싱'은 상자를 열어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말로 '개봉기'로 다듬을 수 있다.

24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을 때에는 기존의 새말을 줄여서 다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줄임말을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82~85쪽

- 01 ② 02 ④ 03 ④ 04 (1) 가을, 하늘, 은, 높고, 푸르다
(2) 가을, 하늘, 은, 높-, -고, 푸르-, -다 05 ① 06 하늘,
구름 07 ② 08 ② 0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① 15 ⑤ 16 ② 17 ① 18 ④ 19 ㉠
는 어근 '잠'과 어근 '자리'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⑥는 어근 '잠자리'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20 ② 21 ① 22 ⑤
23 ⑤ 24 (1) ㉠, ㉡ (2) ㉢ (3) ㉣, ㉤ (4) ㉥ 25 ①

01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단일어는 한 개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오가다'는 어근 '오-'와 '가-'가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소로 분석하면 '오- + 가- + -다'로 나눌 수 있다.

03 문장을 형태소로 나눌 때에는 우선 단어 단위로 나누고, 조사 외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더 나누면 형태소가 된다.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나는 / 김밥 / 이 / 정말 / 좋다'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형태소로 더 쪼갤 수 있는 말은 '김밥'과 '좋다'이고, '김'과 '밥', '좋-'과 '-다'로 나눌 수 있다.

04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인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 따라서 문장을 단어로 나눌 때에는 먼저 조사를 찾으면 쉽다. 그다음 남은 말을 나누었을 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05 '사랑'과 '바다'는 단일어로, 실질 형태소 1개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덧신(덧-+신)'은 형태소 2개이고, '신발'은 형태소 1개이다.

③ '복숭아'는 형태소 1개이고, '알밤(알-+밤)'은 형태소 2개이다.

④ '맨주먹(맨-+주먹)'은 형태소 2개이고, '다람쥐'는 형태소 1개이다.

⑤ '봄바람(봄+바람)'은 형태소 2개이고, '뛰놀다(뛰-+놀-+다)'는 형태소 3개이다.

06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하늘 / 에 / 구름 / 이 / 끼- / -었- / -다'이다. 이 중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하늘, 구름'이다. 그리고 의존 형태소는 '에', '이', '끼-', '-었-', '-다'이고, 실질 형태소는 '하늘', '구름', '끼-'이며, 형식 형태소는 '에', '이', '-었-', '-다'이다.

07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동생 / 의 / 책 / 가방 / 이 / 정말 / 예쁘- / -다'이고, 이 중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의, 이, 예쁘-, -다'로 모두 4개이다.

| 오답 풀이 | ① 형태소는 '동생', '의', '책', '가방', '이', '정말', '예쁘-', '-다'로 8개이다.

③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는 '동생', '책', '가방', '정말'로 4개이다.

④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동생', '책', '가방', '정말', '예쁘-'로 5개이다.

⑤ '책가방'은 '책'과 '가방'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08 제시된 문장에서 '동생', '나', '몰래', '뺑', '먹-'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동생', '나', '몰래', '뺑'이다.

③ 형태소는 더 작게 나누면 그 의미가 사라지므로 형태소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이', '을', '-었-', '-다'이다.

⑤ 홀로 쓰일 수 없어 함께 쓰이는 다른 형태소가 필요한 의존 형태소는 '이', '을', '먹-', '-었-', '-다'이다.

09 '피땀'은 어근 '피'와 어근 '땀'이 결합한 합성어로, 어근의 개수가 2개이다. '뛰다', '아버지', '부르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달달깁'은 접사 '달-'과 어근 '깁'이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은 1개이다.

10 <보기>에서 '햇밤'은 접사 '햇-'과 어근 '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이와 짜임이 동일한 단어는 어근 '뽕방'과 접사 '-꾼'이 결합한 '뽕방꾼'이다.

| 오답 풀이 | ① '수박'은 '수'와 '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②, ④, ⑤ '나팔꽃(나팔+꽃)', '비구름(비+구름)', '물방울(물+방울)'은 각각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1 '한겨울'은 어근 '겨울'에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사 '한-'을 결합한 파생어이다.

12 '바느질'에서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13 ④를 단어로 분석하면 '가지, 많은, 나무, 예, 바람, 잘, 날, 이, 없다'로, 모두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다홍치마'는 어근 '다홍'과 어근 '치마'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개똥'은 어근 '개'와 어근 '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발등'은 어근 '발'과 어근 '등'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낮말'과 어근 '낮'과 어근 '말', '밤말'은 어근 '밤'과 어근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4 '건너온(건너오다)'은 어근 '건너-'와 어근 '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욕심쟁이'는 어근 '욕심'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햇밤'은 접사 '햇-'과 어근 '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가득'은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⑤ '집어넣었다'는 어근 '집-'과 어근 '넣-'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5 ㉠ '함박눈(함박+눈)', ㉡ '맨손(맨-+손)', ㉢ '눈사람(눈+사람)', ㉣ '겹쟁이(겹+쟁이)'는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지만, ㉤ '뛰어내렸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뛰- / -어- / 내리- / -었- / -다'로, 총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16 '다리미질'은 어근 '다리미'와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오가는'은 어근 '오-'와 어근 '가-'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밤나무'는 어근 '밤'과 어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장미꽃'은 어근 '장미'와 어근 '꽃'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꽃잎'은 어근 '꽃'과 어근 '잎'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7 ㉠ ‘새파란’은 접사 ‘새-’와 어근 ‘파랑-’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 ‘한여름’은 접사 ‘한-’과 어근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바람’은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 ‘나무잎’ (나무 + 잎), ㉤ ‘눈인사(눈 + 인사)’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8 ‘된장국(된장 + 국)’, ‘날아가다(날- + 가-)’는 합성어이고, ‘떡구름(떡- + 구름)’, ‘휘감다(휘- + 감-)’는 파생어이다.

19 ㉠은 어근 ‘잠’과 어근 ‘자리’가 결합한 합성어로, ‘잠을 자기 위해 사용하는 이부자리나 침대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반면, ㉡의 ‘잠자리’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로, ‘잠자리목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 ‘늦더위’는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 ‘늦-’과 ‘여름철의 더운 기운’을 뜻하는 ‘더위’를 결합한 단어이므로, ‘여름이 다 가도록 가지지 않는 더위’라는 뜻으로 추측할 수 있다.

21 새말은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모두 포함된다.

22 <보기>는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 중 합성의 방법으로 새말을 만든 예이다. ‘반려동물’도 어근 ‘반려’와 어근 ‘동물’을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 ‘아점(아침 + 점심)’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자만추(자연스러운 + 만남 + 친구)’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오운완(오늘 + 운동 + 완료하다)’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짬짜면(짬뽕 + 짜장면)’은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23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가 결합한 것으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오답 풀이 ▶ ㉠ ‘버카충’은 ‘버스 카드 충전’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와이파이(Wi-Fi)’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새말이다.

㉢ ‘편세권’은 ‘편의점 + 역세권’에서 각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엄지족’은 어근 ‘엄지’에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새말로,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 중 파생의 방법을 사용했다.

24 ㉠ ‘둘레길(둘레 + 길)’, ㉡ ‘꽃청춘(꽃 + 청춘)’은 어근과 어근을 결합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고, ㉢ ‘누리꾼(누리 + -꾼)’은 어근과 접사를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개취’는 ‘개인의 취향’에서, ㉤ ‘심쿵’은 ‘심장이 쿵’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고, ㉥ ‘네티켓’은 ‘네트워크’와 ‘에티켓’에서 각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다.

25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면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ㄱ),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다(ㄴ).

고난도 입심화문제

본책 86~87쪽

01 ㉣ 02 ㉠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인 ㉡와 의존 형태소인 ㉢로 분류하였고, ㉡는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인 ㉣와 형식 형태소인 ㉤로 분류하였다. 03 ㉡ 04 ㉤ 05 ㉠ 06 ㉡와 ㉢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 ㉤, ㉠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07 ㉠ 08 ㉤ 09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에 접사 ‘-족’이 결합된 것으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방법과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01 ‘감나무가 크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감 / 나무 / 가 / 크- / -다’이다. 이 중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감, 나무’로 모두 2개이다. 조사 ‘가’는 의존 형태소이다.

02 <보기>의 ‘어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잔뜩 잡았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어부, 바다, 고기, 잔뜩
	의존 형태소	는, 에서, 를, 잡-, -았-, -다
실질적 의미의 유무	실질 형태소	어부, 바다, 고기, 잔뜩, 잡-
	형식 형태소	는, 에서, 를, 을, -았-, -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로 나는 형태소의 분류 기준을 각각 썼다.	☐
㉢~㉤의 형태소 종류를 각각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3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책 / 가방 / 이 / 무겁- / -다’이다. 이 중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는 ‘이, -다’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책, 가방, 무겁-’이다. 또한 ‘책, 가방, 무겁-’ 중에서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는 ‘무겁-’이고,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책, 가방’이다.

04 ‘엇저녁’은 ‘엇그제’가 아니라 어근 ‘어제’와 어근 ‘저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제’의 ‘ㅈ’이 앞말의 받침으로 이동하였다.

05 ‘햇밤’에서 ‘햇-’은 ‘그 해에 새로 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햇밤’은 ‘그 해에 새로 난 밤.’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 ‘걸레질’에서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걸레질’은 ‘더러움이나 때를 걸레로 닦거나 훑치는 일.’을 의미한다.

③ ‘치뜨고’에서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치뜨고’는 ‘눈을 위쪽으로 뜨고’라는 의미이다.

④ ‘휘젓느라’에서 ‘휘-’는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휘젓느라’는 ‘마구 젓느라’라는 의미이다.

⑤ ‘헛소문’에서 ‘헛-’은 ‘이유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헛소문’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의미한다.

- 06 ㉠ ‘지우개’는 어근 ‘지우-’와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 ㉡ ‘맨발’은 접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책상’은 어근 ‘책’과 어근 ‘상’이 결합한 합성어, ㉣ ‘풀밭’은 어근 ‘풀’과 어근 ‘밭’이 결합한 합성어, ㉤ ‘뛰어다녔다’는 어근 ‘뛰-’와 어근 ‘다니-’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동생’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를 단어의 종류에 따라 바르게 구분하였다.	☐
‘어근’, ‘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어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

- 07 ‘꽃비’는 어근 ‘꽃’과 어근 ‘비’가 결합한 것이므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 08 <보기>의 ‘노래방’은 어근 ‘노래’와 어근 ‘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즉,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인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에 해당한다. ‘반짝세일(반짝 + 세일)’과 ‘꿀피부(꿀 + 피부)’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아점(아침 + 점심), ‘밀당(밀고 + 당기기)’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② ‘꽃미남(꽃 + 미남)’은 합성의 방법으로, ‘열공(열심히 공부하다)’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③ ‘엄지족(엄지 + -족(族))은 파생의 방법으로, 득템(득(得) + 아이템)’은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④ ‘라볶이(라면 + 떡볶이)’는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는 방법으로, ‘누리꾼(누리 + -꾼)’은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09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따온 ‘카공’에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 또는 ‘그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하는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따라서 ‘카공족’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방법과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카공’에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설명하였다.	☐
접사 ‘-족(族)’이 결합하는 파생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설명하였다.	☐

02 어휘의 양상과 쓰임

활동 학습

본책 90~97쪽

- 1 ④ 2 ⑤ 3 “특별한 사고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4 ④ 5 ④ 6 ③ 7 ⑤ 8 ③ 9 공적인 성격의 공간에 맞게 예의를 지켜 글을 썼다. 10 ② 11 ① 12 ⑤

- 1 노년층은 ‘별고(別故)’, ‘무료(無聊)하다’, ‘강녕(康寧)’처럼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어휘는 청소년과 같은 어린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년층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 (가)는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어휘를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이고, (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어휘를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이처럼 세대 간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로가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같은 세대끼리만 대화하면 세대 간 어휘의 차이를 점점 더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②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어휘는 주로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로, 어느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맞추어 어휘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어른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맞추어 청소년층 어휘를 바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④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의 어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를 배려하며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3 ㉠ ‘별고 없으신지요.’에서 ‘별고(別故)’는 ‘특별한 사고’로, 특별한 사고나 어려움은 없는지 묻는 말이다.

- 4 전문어는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적다. 어휘가 담고 있는 뜻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 5 ④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리에 사용하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은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 ㉡은 법률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로, 전문어는 그 의미가 해당 분야 외에 널리 알려진다고 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외래어, ㉡은 한자어에 해당한다.

②, ③ ㉠은 피겨 스케이팅 분야, ㉡은 법률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⑤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대화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6 인터넷 언어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쓰이는 언어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범위의 언어를 말한다. 따라서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말,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포함한다.

7 ‘ㅈㅈ(죄송)’은 초성만 적은 예이고, ‘조아요(좋아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다. ‘세젤예(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은 줄임말을 사용한 예이다. 이는 모두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쓰려는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보여 주는 예로,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반면, ⑤ ‘제에에에발’은 음절을 반복하여 생동감 있게 쓴 것으로, ‘생생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8 인터넷 언어는 간편하게 쓰기, 생생하게 쓰기, 글자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인터넷 언어의 사용과 관련이 없다.

9 학교 누리집 공지 사항 게시 글은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으로, 하준은 소통 공간의 성격에 맞게 예의를 지키며 글을 썼다.

10 윤서는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고,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화하듯 글을 썼다.

| 오답 풀이 | ①, ③ 교내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시 글의 목적에 맞게, 평소 급식실 줄이 길어 불편했던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친구들도 급식 줄이 너무 긴 것을 힘들어한다고 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힘든 것을 건의한 것은 아니다.

⑤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기 전에 소통 상황(ㄱ)과 대상(ㄴ)을 고려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ㄴ. 공적인 소통 공간이므로 친근감을 주는 표현이 아닌 예의를 갖춘 표현을 써야 한다.

ㄹ. 무분별한 인터넷 언어 사용은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ㄷ. 빠른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면 줄임말 사용하기,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등의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인 공간인 학교 누리집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참신한 표현과 재미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태도와 거리가 멀다.

②, ③ 소통 상황과 소통 대상에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인터넷상이라고 해서 표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언어 사용은 자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98~101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④ 05 청소년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한자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06 ② 07 ⑤ 08 ① 09 요리사의 말을 동료 요리사는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일반 학생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10 ⑤ 11 ④ 12 ③ 13 ① 14 왜케, 조아 / 간편하기 쓰는 특성이 나타난다.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쓴다. 15 ① 16 ③ 17 ② 18 ③
- 19 의사가 사용하는 의학 분야의 전문어를 일반인인 보호자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01 (가)는 기성세대가 쓰는 어휘를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나)는 청소년층들이 흔히 쓰는 어휘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를 통해 매체와 어휘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 줄 뿐,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말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전문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이 어려운 것은 전문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가)와 (나)는 전문어와 관련이 없다.

⑤ (가)와 (나)는 다른 세대 간의 어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같은 세대 안에서 어휘의 활용 능력이 다른지는 확인할 수 없다.

02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를 줄여 쓴 말로, 외래어보다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는 예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층, 즉 젊은 세대는 외래어, 줄임말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하고, 이를 통해 그들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03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 쓰는 새말은 우리의 언어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성세대는 새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 간 통합에 어려움이 생긴다.

② 새말 중에는 우리말 규범을 파괴하는 어휘가 많다.

③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새말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만들어 쓰는 새말은 주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04 '국룰'은 '보편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의 새말로, <보기>에서는 아들이 사용하는 '국룰'이라는 어휘를 기성세대인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고, 다른 세대의 어휘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05 '별고(別故) 없다'는 '특별한 사고 없다.'라는 의미이고, '강녕(康寧)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로, 모두 한자어를 사용한 표현이다. 청소년들은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노년층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06 (가)와 (나)의 밑줄 친 어휘는 각각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와 법률 분야의 전문어로,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특정 개념을 담고 있어 다른 말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전문어는 (가)처럼 외국어, (나)처럼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③ 전문어는 복잡한 개념을 간결한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

④ (가)는 체육(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나)는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⑤ 전문어는 가리키는 의미가 중의적이지 않고 정확하며 구체적이다.

07 경기 중계 시 전문 용어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기술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경기 관련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③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말은 '은어'이다.

④ 전문어는 특정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담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참고 자료

전문어와 은어의 개념

전문어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말로, 전문적인 직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움.
은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로,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면 새로운 은어로 변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밀어(秘密語)라고도 부름.

08 전문어는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들끼리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 같은 직종에 속하는 영화 감독과 연출부가 영

상 관련 전문어를 사용하면 연출 의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ㄱ), 오케스트라에 속한 사람들은 음악 분야 전문어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연주법을 서로 의논할 때 음악 관련 전문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ㄴ).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의료계 종사자이므로 의학 관련 전문어를 사용하면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ㄹ. 중학생은 과학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강의를 할 때에는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ㅁ. 대중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대중을 대상으로 경제 위기를 호소할 때에는 알기 쉽게 말해야 한다.

09 전문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리사가 공기를 뜨겁게 하여 볶는 방법인 '오븐 로스팅'으로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동료 요리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일반 학생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10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이 등장하면 그에 따라 새로운 전문어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생긴 전문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전문어도 잘 알지 못한다.

11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범위의 언어로,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간편하게 쓰기, 생생하게 쓰기, 글자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순삭', '꿀잼'처럼 말을 줄이거나, '머해', '조아', '보고시퍼'처럼 소리 나는 대로 써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② 시무룩한 마음을 '힝~'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③ '1도 안 보고 싶은 줄'처럼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써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⑤ 인터넷 언어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말, 사진, 영상과 같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모두 언어로 활용할 수 있다.

12 '1도 안 보고 싶은 줄'은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써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그림말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13 인터넷 언어로 사진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준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과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14 '왜케'는 '왜 이렇게'를 의도적으로 글자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고, '조아?'는 '좋아?'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는 모두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쓰기 위한 것으로,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15 ㉠ ‘생생하게 쓰기’의 예로는 ‘헉’, ‘절레절레’처럼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거나, ‘제에에에발’처럼 음절을 반복하여 생동감 있게 쓰는 것 등이 있다. ㉡ ‘재미있게 쓰기’의 예로는 ‘최오!’처럼 의도적으로 글자를 잘못 쓰거나, ‘Aㅏ...’, ‘1도 모르겠다’처럼 영문자나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써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 ㉡ ‘순삭’은 간편하게 쓰기, ‘ㅏㅏ...’는 재미있게 쓰기에 해당한다.

㉢ ‘제에에에발’은 생생하게 쓰기, ‘ㅏㅏ’는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절레절레’는 생생하게 쓰기, ‘보고시피’는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1도 모르겠다’는 재미있게 쓰기, ‘지뭇미’는 간편하게 쓰기에 해당한다.

- 16 하준은 학교 누리집에 올랐던 게시 글에 댓글로 소통하는 공적인 성격의 소통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예의를 지키며 글을 썼고 건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윤서는 공격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으며, 예의를 지키지 않고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화하듯 글을 썼다.

| 오답 풀이 | ① 공적인 성격의 게시판이므로 언어 규범을 지켜야 한다.

② 하준은 건의 사항을 예의 있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공적인 성격의 학교 게시판이므로 친구에게 사적으로 말하는 듯한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윤서는 공적인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게 자신의 표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 17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윤서처럼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써서는 안 되며, 인터넷상이라고 해서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넷 언어는 비대면 상황에서 사용하므로 전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 오답 풀이 | 다, ㄹ 소통 상황과 대상에 맞게 써야지 무조건 재미있게 쓰거나 간략하게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 18 세대 간 어휘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말해야 한다. 세대 간 어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소통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기침을 한다’라는 상황을 볼 때 ‘고뽀’는 ‘감기’를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②, ④ 요즘 세대가 ‘감기’라고 부르는 것을 할머니 세대는 ‘고뽀’이라고 불렀다.

⑤ 다른 세대의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주로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 19 <보기>에서는 의사가 수술 중 있었던 일을 보호자에게 설명하면서 의학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난도 읽/심화문제

본책 102~103쪽

01 ④ 02 ③ 03 <보기>와 같이 중계하면 경기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중계하기 어려운 반면, 전문어를 사용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경기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중계할) 수 있다.

04 같은 세대인 언니는 ‘볼매’의 뜻을 알지만 다른 세대인 엄마는 ‘볼매’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05 ④ 06 ①

07 (나)는 사적인 대화 공간에서 인터넷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지만, <보기>에서 윤서는 공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다.

- 01 (가)와 (나)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의 양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가)에서는 청소년층이 기성세대(노년층)에서 사용하는 ‘사흘’, ‘별고(別故)’, ‘무료(無聊)’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나)에서는 기성세대(노년층)가 청소년층에서 사용하는 ‘볼매’, ‘알잘딱깔센’, ‘국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가 사용하는 어휘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④는 다른 세대가 사용하는 어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2 청소년층이 방언을 흔히 사용하고, 노년층이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표준어 사용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층은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국룰(보편적으로 정해진 규칙)’처럼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노년층은 줄임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② 노년층은 예의와 격식을 갖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청소년층은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나누는 친근한 표현을 자주 쓴다.

④ 국어 규범을 중시하는 노년층 어휘와 달리 청소년층 어휘는 국어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⑤ 청소년층은 새로운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언어에 반영하여 새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쓰고, 노년층은 원래 쓰던 어휘를 안정적으로 사용한다.

대단원 평가문제

- 03 <보기>는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중계하면서 피겨 스케이팅 기술을 풀어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처럼 중계하면 피겨 스케이팅 기술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중계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전문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계할 때의 문제점을 썼다.	☐
전문어의 사용 효과를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4 나원과 같은 세대인 언니는 '볼매'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원이 언니에게 말할 때에는 자신이 평소 쓰던 어휘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세대가 다른 엄마는 '볼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할 때에는 그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처럼 세대 간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원이 상대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한 이유를 썼다.	☐
세대별 어휘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5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적으므로, 의미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는다.

- 06 '꿀잼'은 '매우 재미있음'을 간편하게 쓴 표현으로, 표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보고시퍼'는 '보고 싶어'를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표현한 것이다.

③ 그림말을 언어의 일부로 활용하면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시간 순식'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다'를 줄여 쓴 표현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간편하게 쓴 예이다.

⑤ 'ㅋㅋㅋㅋ'는 웃음소리를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표현함으로써 실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 07 (나)는 친구들 사이의 단체 대화방으로, 친구들 간의 사적인 대화 공간이므로 격식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인터넷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으로, 공적인 공간이다. 윤서는 공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예의를 지키지 않고 친구에게 대화하듯 사적으로 글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와 (나)를 비교하여 썼다.	☐
윤서가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음을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③ 06 (1) 단일어인 '머느리, 얼굴'과 복합어인 '한겨울, 잠꾸러기, 뽀뽀, 맨주먹, 물결레'로 나뉜다. (2) 합성어인 '뽀뽀, 물결레'와 파생어인 '한겨울, 잠꾸러기, 맨주먹'으로 나뉜다. 07 ② 08 ② 09 (1) 기존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었다. (2) ④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었지만, ⑤는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들었다.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일반인인 환자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풀어서 표현한다. 17 ③ 18 ③ 19 ⑤ 20 (1)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어휘의 의미를 물어본다. (2)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표현한다.

- 01 제시된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그, 는, 손가락, 이, 몹시, 길었다'로, 총 6개이다. 이를 다시 형태소로 나누면 '그, 는, 손, 가, 락, 이, 몹시, 길-, -었-, -다'로, 총 9개이다.

- 02 '마시다'는 '마시-'와 '-다', '팔떡'은 '팔'과 '떡'으로,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 오답 풀이 | ① '사람'은 형태소 1개, '들꽃(들 + 꽃)'은 형태소 2개이다.

③ '김밥(김 + 밥)'은 형태소 2개, '뛰놀다(뛰- + 놀- + -다)'는 형태소 3개이다.

④ '바라다(바라- + -다)'는 형태소 2개, '웃었다(웃- + -었- + -다)'는 형태소 3개이다.

⑤ '발바닥(발 + 바닥)'은 형태소 2개, 보았다(보- + -았- + -다)'는 형태소 3개이다.

- 03 '먹는다'에서 '먹-'은 실질 형태소이고, '-는'과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 04 '논밭'은 '논(어근) + 밭(어근)'으로, '꽃나무'는 '꽃(어근) + 나무(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웃사과'는 '웃-(접사) + 사과(어근)'로, '한여름'은 '한-(접사) + 여름(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③ '그림책'은 '그림(어근) + 책(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햇수고'는 '햇-(접사) + 수고(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책방'은 '책(어근) + 방(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날음식'은 '날-(접사) + 음식(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손수건'은 '손(어근) + 수건(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새파랗다'는 '새-(접사) + 파랗다(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05 '치숫다'는 접사 '치-'와 어근 '숫-'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산나물'은 어근 '산'과 어근 '나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지우개'는 어근 '지우-'와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가위', '바늘', '먹다(먹-)', '무지개'는 모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06 <보기>에서 '머느리', '얼굴'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한겨울', '잠꾸러기', '뛰놀다', '맨주먹', '물결레'는 복합어이다. 이 복합어 중 '뛰놀다'는 어근 '뛰-'와 어근 '놀-'이, '물결레'는 어근 '물'과 어근 '결레'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한겨울'은 접사 '한-'과 어근 '겨울'이, '잠꾸러기'는 어근 '잠'과 접사 '-꾸러기'가, '맨주먹'은 접사 '맨-'과 어근 '주먹'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잔혹'은 '잔인하고 혹독한'이라는 뜻의 단일어로,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 뜻을 더하는 접사 '잔-'이 결합한 단어가 아니다.

08 '부채질(부채 + -질)'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등잔(등 + 잔)', '소도둑(소 + 도둑)', '돌다리(돌 + 다리)', '윗물(위 + 물)'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9 '소확행'과 '봉세권'은 (나)에서 설명한 '기존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새말'에 해당한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고, '봉세권'은 '봉어빵 + 역세권'으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10 '그림말'은 '이모티콘'을 우리말로 순화한 말이므로, ㉠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텀블러(Tumbler)'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온 새말이다.

② '누리집'은 '홈페이지(homepag)'를 우리말로 순화한 새말이다.

③ '반려동물'은 어근 '반려'와 어근 '동물'이 결합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고, '캠핑족'은 어근 '캠핑'에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⑤ '레포츠'는 '레저(leisure)'와 '스포츠(sports)'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11 '더치페이'를 한자어인 '각출(各出)'로 바꾸는 것은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치페이'는 '각자내기'와 같은 말로 바꿀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례

외래어		다듬은 말
브이로그	→	영상 일기
스크린 도어	→	안전문
텀블러	→	통컵
리유저블 컵	→	다회용 컵
블랙 아이스	→	도로 살얼음
팝업 창	→	알림창

12 새말이 우리말의 규범을 벗어나거나 새로울수록 시대 변화에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의 규범에 맞게 순우리말로 다듬었을 때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이 달라 서로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생긴다. 세대별 어휘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외래어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어느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어휘로 일방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ㄱㄱ'은 '고고(go go)'의 초성만 적은 것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쓴 것이다.

15 윤서는 급식실 줄이 길어서 친구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윤서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라는 공적인 성격의 공간에 건의한다는 소통 상황을 무시하고 친구에게 대화하듯 글을 썼다.

③ 공적인 성격의 공간이므로 격식을 갖추어 써야 하는데,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반말로 썼다.

④ 학교 누리집 공지 사항 게시판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다.

16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상기도 감염'이라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명을 전달한 것은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일반인인 환자에게는 '염증이 생겼다'라는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17 (가)에는 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전문어가 사용되었다. 전문어는 각 분야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휘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즉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는 같은 의미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18 '1도 안 보고 싶은 줄'은 정확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씀으로써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19 인터넷 언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을 거치며 빠르게 변화한다.

20 <보기>에서 '나'는 '금일'의 의미를 몰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자 선생님께 모르는 어휘를 물어보았고, 선생님은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전문어나 인터넷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삶을 바꾸는 글의 힘

01 추론하며 읽기

제재

본책 112~117쪽

1 ⑤ 2 ④ 3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둔 것이다. 4 ② 5 ⑤ 6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였다. 7 ③ 8 ② 9 ② 10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은근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1 이 책의 표지 그림은 사람의 머리 위에 노란 전구를 그려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 순간을 표현하고, 이 책의 부제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을 뜻하는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차례에 나타난 이 글의 소재목들은 공통적으로 은근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글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소개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라)에서 글쓴이는 많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넋지 효과가 인상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넋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이곳의 쓰레기는 영원히 치울 수 없을 까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글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라)에서 우리말로 '팔꿈치를 쿡쿡 찌른다.'라는 '넋지'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화를 도입부에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담벼락의 쓰레기가 사라진 결과를 먼저 제시한 후, (다)에서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였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에서 누군가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두자, 사람들이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담벼락 앞의 화단 조성이라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4 피아노 계단 사례와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넋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익 캠페인에서 효과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공익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넋지 효과를 연구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공익 캠페인의 주제가 주로 환경, 안전 등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넋지 효과는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은근하게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넋지 효과가 사람들의 행동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글쓴이는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화장지 케이스에 담긴 아이디어를 독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시각화한 넋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하고, 독자가 글에 제시된 넋지 효과의 사례에 공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6 (바)에서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계단을 피아노 모양으로 설계하여 사람들이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만들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6퍼센트나 늘었다고 하였다.

7 '화장지를 아껴 씹시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것은 기존의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아)에서는 화장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러한 안내문을 붙이는 대신 넋지 디자인을 가미한 창의적인 화장지 케이스를 선보이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화장지를 아껴 씹시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글쓴이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잔소리'에 비유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부드러운 힘'에 비유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존의 해결 방법은 규제나 단속, 감시 도구 등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에,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③, ④ 기존의 해결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에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은근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⑤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기존의 해결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9 ㉠은 넋지 효과를 이용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춘 미국 시카고의 사례를 부산에서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은 도로의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점점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그린 가로선은 운전자가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⑤ 부산에서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곡선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을 설치하였다.

10 ㉠은 부산의 새로운 도로 시설, 노면 색깔 유도선 등 이 글에 제시된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이처럼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은근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족집게 예상 문제

본책 118~121쪽

01 ⑤ 02 ⑤ 03 ② 04 ㉠은 담벼락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은 것이고, ㉡은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된 것이다. 05 ⑤ 06 ④ 07 ④ 08 ① 09 실제로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③ 15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갈색 지방의 역할을 떠올리며, 추운 날에도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이다.

01 이 글은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의 해결 방법과 대조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넋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해결 방법과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의 공통점을 정리하는 것은 이 글을 추론하며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넋지 효과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 규제나 감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넋지 효과가 아니라 기존의 해결 방법이다.

㉡. 넋지 효과는 많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03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소문과 경고문을 붙이고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으나,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자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든 것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③, ⑤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의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④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넋지 효과를 활용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04 ㉠ ‘작은 자극’은 사람들이 매일 쓰레기를 버리던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둔 것이고, ㉡ ‘큰 변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어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리킨다.

05 넋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는 작은 자극을 주어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6 ㉠은 공익 캠페인의 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넋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공익 캠페인에서 효과적인 까닭을 추론하고 있다. ㉡은 아마존 일대의 역할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은 경험을 활용하여,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표현한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독일에서 전력을 아끼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때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만든 ‘피아노 계단’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08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리킨다. 반면, 노면 색깔 유도선은 시각적인 변화를 주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09 도로의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까지 간격을 좁혀 흰색 가로선을 그리자, 운전자가 곡선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10 ㉠은 도로의 곡선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1 ㉠에서 글쓴이는 좋은 의도로 낸 해결책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12 (나)에서 백색 지방은 쓰고 남은 열량을 몸에 저장하는 반면,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갈색 지방이 쓰고 남은 열량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아이들은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탈까?」 개관

갈래	설명하는 글	성격	설명적, 대조적, 객관적
소재	우리 몸속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주제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갈색 지방		
특징	- 질문 형식의 제목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함. - 서두에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화제를 던져 독자의 흥미를 끌. -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실제 연구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에 신뢰성을 더함.		

- 13 (나)에서 갓난아이들은 추위에 반응하여 몸을 떨어 열을 발생 시킬 만큼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속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내는 열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갈색 지방이 갓난아이의 뼈와 근육의 성장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추울 때 몸을 떨게 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갈색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하는 일이다.

④ 갈색 지방이 열을 많이 만들어 백색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므로,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을 늘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였다.

⑤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수 있으나, 갈색 지방이 불필요한 열량을 빠르게 소비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4 (라)에서 유산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ㄱ),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면(ㄴ)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ㄴ, 백색 지방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ㄷ, (라)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덥다고 느끼는 27도에서는 갈색 지방의 비율이 기준치보다 줄었다고 하였다.

- 15 ㉠에서 '갈색 지방의 비밀'은 근력 운동을 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몸을 차갑게 유지할 때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글쓴이는 독자에게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떠올리며, 날씨가 춥다고 이불 안에만 웅크려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라고 당부하기 위해 ㉠과 같이 말한 것이다.

고난도 읽기 심화 문제

본책 122~123쪽

- 01 ③ 02 넷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하고, 독자가 글에 제시된 넷지 효과의 사례에 공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03 ③ 04 ⑤ 05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메시지, 즉 넷지 효과처럼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6 ② 07 ② 08 ② 09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이기 때문이다.

- 01 사람들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여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들거나,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를 선보여 사람들이 화장지를 아껴 쓰게 한 사례를 통해, 넷지 효과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2 <보기>는 (나)에 제시된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시각화한 넷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하고, 글에 제시된 넷지 효과의 사례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장지 케이스에 적용된 넷지 디자인의 효과를 강조할 수 있음을 썼다.	☐
독자가 글에 제시된 넷지 효과의 사례에 공감하게 할 수 있음을 썼다.	☐

- 03 넷지 효과는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주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각 이후에 게임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규제를 활용하는 기존의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 04 ㉠에서 '인상적'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된다. 즉 ㉠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넷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 05 ㉡에서 '잔소리'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메시지'는 넷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넷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넷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에는 넷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썼다.	☐
'부드러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6 (라)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근육량과 반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게 해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갈색 지방과 같이 우리 몸에 유익한 지방도 있다.

③ 기온이 낮으면 근육을 떨면서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올릴 수 있으나, 갓난아이들은 추위에 반응하여 몸을 떨 만큼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갓난아이들보다 근육이 발달한 성인은 추울 때 보통 근육을 떨면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갓난아이들은 몸속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내는 열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갓난아이들의 몸속에는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면 갈색 지방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을 확률이 높다.

- 07 (라)에서 글쓴이는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과 관련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몸의 온도가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면서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08 이 글에서 글쓴이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갈색 지방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09 ㉔은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보다 더 추위를 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까닭을 질문하고 있다.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내는 열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이가 들수록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2 주장하는 글 쓰기

본책 126~139쪽

활동 학습

1 ⑤ 2 ② 3 ① 4 ⑤ 5 ④ 6 ② 7 ③
8 (가) 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⑤ 19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20 ② 21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22 ② 23 ③ 24 ①
25 ④ 26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 27 ⑤

- 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오답 풀이 | ① 소설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② 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③ 수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④ 설명하는 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 2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ㄴ) 그와 관련한 주장을 정해야 한다(ㄷ).

| 오답 풀이 | ㄱ.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구성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ㄴ.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ㄷ.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3 지유는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어떤 친구들은 성격 유형 검사를 지나치게 믿고, 인터넷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였다.

- 4 지유는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글을 쓰기로 하였다.

- 5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성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주장을 정한다.

②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한다.

- ③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근거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글의 구조의 완결성 등을 점검하며 글을 고쳐 쓴다.
- ⑤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한다.
- 6 (나)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엠비티아이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7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하고(ㄱ) 자료의 내용이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ㄴ),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ㄷ) 확인해야 한다.
- 8 <보기>는 엠비티아이 검사에서는 한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한 성격 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성격 특성을 둘로 나누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가 적절하다.
- 9 (마)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공공 기관의 공식 블로그의 내용이므로 신뢰할 수는 있으나, 주장과의 관련성이 적으므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한국 전기 안전 공사 공식 블로그, 2022. 8. 5.'라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엠비티아이와 관련된 자료는 맞으나, 자료의 내용이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 10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와 실제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지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11 주장하는 글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서론에서는 글에서 다룰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에서는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한다. 글에 제시된 중심 화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서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12 개요는 글을 쓰기 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개요를 먼저 작성하면, 글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고,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

- 13 '근거 2'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는 내용이다.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은 '근거 2'와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으므로 '근거 2'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14 <보기>는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항목은 '본론 - 근거 3'이다.
- 15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 16 서론에 해당하는 (가)에서는 이 글의 중심 화제인 '성격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중심 소재를 밝히지 않다가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와 같이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성격 유형과 엠비티아이 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논란이 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나는 외향적이고 계획을 중시하는 ○○○○ 유형인데, 넌 어떤 유형이야?"와 같이 독자가 일상에서 나누어 봤을 법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17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에 대해, 엠비티아이 검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쓴 글이다.
- 18 이 글에서 사람들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까닭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성격 유형은 한 단어로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 ② 에니어그램, 디스크(DISC), 엠비티아이(MBTI) 등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였다.
- ③ 엠비티아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다.
- ④ 엠비티아이 검사는 각각의 성향을 조합하여 성격 유형을 총 열여섯 가지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 19 ㉠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글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 (라)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엠비티아이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엠비티아이 성격 유형 분류에 따르면, 외향 51퍼센트, 내향 49퍼센트인 사람은 그 수치가 더 높은 외향형으로 분류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전문가가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면 정확한 설명을 들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개의 알파벳이 표현하는 전형적인 성격으로만 성격 유형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21 이 글의 결론인 (바)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자신이 속한 성격 유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이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입니다.”라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2 ㉠은 ‘○○○○ 유형과 가장 잘 맞는 유형은?’과 같이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3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밝히면 근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4 고쳐쓰기는 특정한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25 주장하는 글을 점검할 때에는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였는지,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썼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지는 주장하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26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주장하는 글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엠비티아이 관련 연구소의 연구부장’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제시된 바와 같이 고쳐 쓴 것이다.

27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모호한 표현이므로,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들’이라고 고쳐 쓴 것이다.

독집해 썬 예상 문제

본책 140~143쪽

-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08 ② 09 ④ 10 ㉠ - ㉡ - ㉢ - ㉣ - ㉤
11 ① 12 ④ 13 ② 14 ⑤ 15 ⑤ 16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1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가)~(마)와 관련된 글쓰기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구성한다.

| 오답 풀이 | ①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④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할 일이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2 (다)에서 엠비티아이 관련 연구소 연구부장의 의견을 인용하여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고, (라)에서 ○○○ 심리학과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03 (마)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기>의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나)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의 엠비티아이 검사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관계가 없다는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③ (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자신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속한 성격 유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4 (가)는 한 성격 특성에서 중간쯤에 있는 학생 ㉞와 학생 ㉟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성격을 둘로 나누는 엠비티아이 검사는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㉟은 중간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05 개요는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한 것으로(ㄴ), 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ㄷ),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ㄹ).

| 오답 풀이 | ㄱ.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정 중,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 중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06 이 개요의 ‘본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은 확인할 수 없다.

07 이 개요에서는 ‘서론’에서 주장을 제시하고, ‘결론’에서 다시 주장을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다. 이 개요에 나타난 주장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이다.

08 이 개요의 ‘결론’에서는 엠비티아이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이라는 정식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면,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09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이때,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 계획하기 - ㉡ 내용 생성하기 - ㉢ 내용 조직하기 - ㉣ 표현하기 - ㉤ 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1 (라)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다)에서 인터넷상의 무료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 (가)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성격 유형’은 한 단어로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외향 55퍼센트, 내향 45퍼센트인 학생 ㉞와 외향 45퍼센트, 내향 55퍼센트인 학생 ㉟는 성격 특성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엠비티아이 성격 유형 분류에 따르면 학생 ㉞는 외향형으로, 학생 ㉟는 내향형으로만 인식된다고 하였다.

12 (가)에서는 각종 언론이나 영상 자료,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성격 유형’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회 현상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3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인터넷상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엠비티아이 검사는 검사 당시 응답자의 심리 상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엠비티아이가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의 종류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4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렵다. ㉟는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이러한 표현을 삭제하고, ‘~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로 표현하여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글의 설득력을 높이하고자 한 것이다.

15 (가)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자영업자들이 손님들의 악의적인 후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에 대해 (가)는 소비자의 입장을, (나)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예시로 올라와 있던 케이크의 사진과 실제 상품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사례를, (나)에서는 후기를 조건으로 무분별한 요청을 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는 손님들이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라는 공통 화제에 대하여, (가)는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나)는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16 (나)는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게시판이 없어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쓴 기사이다. 이 관점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보기>는 거짓 후기로 게시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주장과 관련이 있다. 또한 <보기>는 실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도한 기사이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보기>는 (나)의 관점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44~145쪽

- 01 ④ 02 ⑤ 03 ④ 04 글에서 다룬 문제 상황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05 ③ 06 ⑤ 07 <보기>는 엠비티아이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08 ①

- 01 주장하는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생성한 내용을 배치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하여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02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내용이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객관적인 정보를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는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 03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서 글의 주장과 관련 없는 내용은 없는지(ㄱ), 글의 흐름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ㄴ),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알맞게 연결되는지(ㄷ) 등을 점검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ㄷ.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나 맞춤법이 올바른지는 글을 쓴 후 '교차쓰기' 단계에서 점검할 항목이다.

- 04 이 개요의 '서론'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체적인 사례, 즉 글쓴이가 발견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장하는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바르게 썼다.	☐
제시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5 <보기>는 엠비티아이가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엠비티아이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보기>는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 1'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엠비티아이 검사가 지닌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는 엠비티아이 검사에서는 한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은 쪽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보기>는 외향 55퍼센트, 내향 45퍼센트인 학생 ㉠과 외향 45퍼센트, 내향 55퍼센트인 학생 ㉡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 06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엠비티아이 검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보기>는 엠비티아이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내용이 글쓴이의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썼다.	☐
완전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 08 <보기>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대상을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은 대상을 '청소년들'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46~151쪽

- 01 ② 02 ⑤ 03 ④ 04 ② 05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06 ④ 07 ③ 08 ④
- 09 지구의 허파 10 ① 11 독자의 경험 12 ④ 13 ④
- 14 ① 15 나이가 들수록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갈색 지방의 몸속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6 ④
- 17 ④ 18 (1)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19 ① 20 ③ 21 ③ 22 ③
- 23 ⑤

- 01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또는 글의 제목, 소재목, 표지, 차례, 글에 제시된 사례, 시각 자료, 단어나 문장의 의미, 접속어 등 글의 흐름이나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필명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며 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다.
- 02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던 담벼락 앞에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 두자, 밤에 몰래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려던 사람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돌아갔다는 행동의 변화는 서술하였으나, 이러한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준 심리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담벼락과 같이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화로 글을 시작하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 ② (다)에서 규제나 감시 대신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이라는 ‘넛지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내용의 호소문과 경고문, 시시 티브이(CCTV) 등 담벼락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했던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이곳의 쓰레기는 영원히 치울 수 없을까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며, 이후 담벼락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게 된 내용으로 글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03 글쓴이는 넛지 효과를 활용하여 담벼락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처럼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넛지 효과가 인상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넛지 효과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넛지 효과를 이용한 사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이후 넛지 효과를 이용한 다른 사례들을 제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늘 쓰레기가 쌓여 있던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담벼락 앞의 화단은 쓰레기를 버리려던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 06 (가)는 독일의 피아노 계단 사례를, (나)는 국제 환경 보호 단체 더블유더블유에프(WWF)의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통해 넛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 오답 풀이 |** ① 독일에서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6퍼센트 늘어났다고 하였다.
- ② 넛지 효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한다.

‘은근하게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이 생각들’이란 소재목에는 이러한 넛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③ 전력을 아끼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거나, 화장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장지를 아껴 쓰시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기존의 해결 방법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과 달리, 피아노 계단과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와 같이 넛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⑤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가 그려진 화장지 케이스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여, 화장지 케이스에 가미된 넛지 디자인의 효과에 독자가 공감하도록 유도하였다.

07 이 글은 넛지 효과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넛지 효과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8 ㉠에서 ‘은근하다’라는 표현은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 효과의 특성을 나타낸다.

09 (나)의 화장지 케이스는 사람들이 화장지를 뽑아 쓸 때마다 아마존 일대가 있는 남미 지도에서 초록색 부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도록 하여, ‘화장지를 낭비하면 숲이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숲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아마존 지역의 상징성을 (나)에서는 ‘지구의 허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10 이 글은 넛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넛지 효과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넛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곡선 구간의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경찰이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해 보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

③, ④ 부산에서는 미국 시카고의 사례를 참고하여,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간격을 좁혀서 흰색 가로선을 그렸다. 이 도로 시설은 운전자가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하여 곡선 구간의 과속 문제를 해결하였다.

⑤ ‘천편일률적’이란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사고 예방 캠페인과 같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11 <보기>는 도로 위에 그린 분홍색 선을 본 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론한 것이다.

- 12 ㉠ ‘부드러운 힘’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처럼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으로써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해결 방법의 특징이다.
- 13 ㉡, ㉢, ㉣, ㉤는 모두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 글쓰기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다. 반면, ㉠은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으로 글쓰기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14 백색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쓰고 남은 열량을 몸에 저장한다(㉡). 반면에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아(㉢) 갈색을 띠며, 갓난아이들의 경우 갈색 지방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내는 열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또한 갈색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몸속 비율이 줄어드는데, 유산소 근력 운동 등을 통해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
- 15 몸속 갈색 지방이 많으면 추운 환경에서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하였다.
- 16 ㉠은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면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한 부분으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 17 글쓰기에서 개요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개요를 작성해야 짜임새 있게 글을 쓰고 글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요 작성을 건너뛰고 바로 글을 쓰는 것은 올바른 글쓰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18 (나)에서 글쓰기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밝히고, 이에 대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바)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19 이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가)~(나)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논란이 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례를 통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 글의 서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 20 (라)에서 인터넷상의 무료 엠비티아이 검사는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인터넷상에서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 (가)에서 엠비티아이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성향을 조합하여 성격 유형을 총 열여섯 가지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 (바)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이라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엠비티아이 검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한 사람의 성격을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마)에서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 21 (라)에서 이미 ‘○○○○ 유형과 가장 잘 맞는 유형은?’과 같이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엠비티아이 자료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의 예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라)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와 같이 질문 형식으로 주장을 드러내어 이후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과 관련한 근거 내용으로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 (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학생 ㉢와 학생 ㉣의 예를 제시하면서, 엠비티아이가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 (마)는 엠비티아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바)는 ‘우리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 22 (바)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과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에 불과하다는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23 ㉠은 ‘새 학기 첫날 “나는 외향적이고 계획을 중시하는 ○○○○ 유형인데, 넌 어떤 유형이야?”와 같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글의 소재와 관련한 최근 사회 현상을 추가로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고쳐 쓴 것이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01 매체와 생활

활동 학습

본책 156~167쪽

1 ③ 2 ⑤ 3 ④ 4 ④ 5 ④ 6 ③ 7 ⑤
8 누리집 댓글 / 문자 메시지 등 9 ⑤ 10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었다. / 인터넷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다. 11 ③ 12 ④ 13 ③ 14 ① 15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 수용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을 찾아가 시청한다. 16 ② 17 ④ 18 ① 19 ① 20 ② 21 ⑤ 22 ② 23 매체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미친다. / 매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24 ③

- 1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 2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게에 게시된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관한 안내문은 특정 장소(가게)에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3 신문은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고(ㄱ), 텔레비전과 영화는 소리와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이다(ㄴ). 또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모두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속한다(ㄹ).
|오답 풀이| ㄴ. 라디오는 소리와 음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 매체이다.
ㄷ. 인터넷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인 뉴 미디어이고, 잡지는 인쇄 매체이다.
- 4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이면서 대중매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뉴 미디어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책, 영화, 녹음기,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이다.
- 5 대중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 6 대중매체는 많은 자본을 지닌 전문 조직(방송사, 신문사)에 속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ㄷ) 협업 및 분업하여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ㄴ).
|오답 풀이| ㄱ. 대중매체는 연출가, 작가, 기자, 연예인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ㄴ. 대중매체는 전문 제작 기술과 장비를 갖추어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 7 대중매체는 주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 8 인터넷이 발달하고 보편화되면서, 제한적이지만 시청자가 방송사의 누리집 게시판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남기거나 방송사에 문자 메시지나 전자 우편을 보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 9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송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개인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다.
- 10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전문 조직이 아닌 일반 개인도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이 가능해졌다.
- 11 이 만화에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인 수호와 나무별은 여러 명의 수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일대일뿐만 아니라 다대다로도 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만화에서 생산자는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도는 수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②, ⑤ 이 만화에서 수용자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등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 12 이 만화에서 '여행 최고'가 '여행지에서 영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라고 댓글로 질문을 올렸고, 수호가 나무별에게 이 질문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무별이 앞으로 여행지에서 영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3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므로 특정 시간에 켜매이지 않고 방송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다(ㄹ). 또한 생산자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며, 수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을 찾아가 시청한다(ㄷ).
|오답 풀이| ㄱ.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ㄴ. 개인 인터넷 방송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에 비해 방송 심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를 다루기도 한다.
- 14 ㉠은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을 직접 수행하며 방송국과 같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15 ㉠에서 여행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해당 방송을 공유해 주려는 모습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이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고, 수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을 찾아가 시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대중매체는 방송사, 신문사 등의 전문 조직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7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 오답 풀이 | ㉠ 대중매체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대중매체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즐거움을 주는 등 여러 긍정적 영향력도 지닌다.

㉢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인터넷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므로, 언제나 대중매체보다 수용자의 범위가 좁거나 영향력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사회의 다양한 문화나 가치를 전수하며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18 <보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한 내용으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사회의 문화나 가치 등을 전수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19 매체는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며, 사회의 문화나 가치를 전수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과 라디오에서 일기 예보를 듣고 우산을 챙긴 것(㉡)은 이러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경험한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 개인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잘못된 요가 동작을 익힌 것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경험한 사례에 해당한다.

㉣ 인터넷에서 거짓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경험한 사례에 해당한다.

20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소설이 잡지에 연재된 것은,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오답 풀이 | ㉠ 라디오에서 도심 외곽 도로의 교통 정체 상황을 방송하는 것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텔레비전 뉴스에서 현재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음을 보도하는 것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해외 축구 경기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소식이 바로 인터넷 기사로 전해진 것은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21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모두 생산자는 매체 자료를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2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비리가 밝혀지면서 관련자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관여하는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 ㉤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는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23 이 만화에서는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다루고 있다. 즉 ㉠ '매체의 두 얼굴'이란 매체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4 매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생산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는 객관적 사실과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 매체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지니므로,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긍정적인 내용의 매체 자료만 수용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독집계속 예상문제

본책 168~171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② 05 ② 06 ③

07 개인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한다. /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기획, 촬영, 편집 등을 직접 수행한다.

08 ② 09 ④ 10 ④ 11 ④ 12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 13 ① 14 ②

01 ㄱ은 신문과 잡지로, 소리가 아니라 문자와 사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다.

| 오답 풀이 | ② ㄴ은 라디오로, 소리와 음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 매체이다.

③ ㄷ은 텔레비전으로, 소리와 음성, 문자, 영상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이다. 텔레비전은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와 함께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속한다.

④ ㄹ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이다.

⑤ ㄱ~ㄷ은 전통적인 대중매체, ㄹ은 대중매체의 기능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로,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다.

02 대중매체는 전문 장비를 갖추고 다수의 전문 인력이 협업하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매체 자료를 만드는 데 비교적 적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03 (나)에서 생산자는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4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ㄱ), 수용자의 댓글에 생산자가 답변하는 등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ㄴ.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대중매체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므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ㄹ.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데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대중매체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와 기술 없이 제작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자본이 적게 든다.

05 여행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여행 관련 개인 인터넷 방송 제작자가 나온 방송을 공유해 주어야겠다는 내용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을 찾아가 시청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는 자신의 방송을 보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06 ㉠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제작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 개인이 손쉽게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경우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방송국과 같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08 개인 인터넷 방송이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으로서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전문 인력이 아니어도 누구나 전문 기술 없이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09 이 만화에서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10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차별과 편견이 담긴 표현에 익숙해진 것은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사례에 해당한다.

②, ③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 사례에 해당한다.

⑤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사회의 문화나 가치를 전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11 <보기>는 매체가 사회적 안전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이는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 있다.

12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

13 <보기>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와 달리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짜 뉴스나 자극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전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4 매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올바른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생산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매체 자료를 편집하면 수용자에게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매체를 이용하는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렵다.

고난도 심화 문제

본책 172~173쪽

01 ⑤ 02 대중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03 ⑤ 04 매체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다. 05 ④ 06 ③

01 대중매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업 및 분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 및 분업하지 않고,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적다.

③, ④ 대중매체는 방송사, 신문사 등의 전문 조직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므로,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 02** (나)에서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대중이라고 하였고, (마)에서 여행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여행 전문 방송의 제작자가 출연한 방송을 공유해 주려는 모습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의 수용자가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매체가 매체 자료를 전달하는 대상을 바르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3** 과거에는 대중매체의 수용자인 대중이 신문사나 방송국 등 대중매체의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제한적이지만 누리집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04** <보기>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으로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가 늘어난 사례로, 이를 통해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가 사회 문제에 관여함을 바르게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 05** ‘노 키즈 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만 읽은 후 ‘노 키즈 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매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하여 혼란을 준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④는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즐거움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관련된 사례이다.

②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과 관련된 사례이다.

③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사회의 문화와 가치 등을 전수해 주는 것과 관련된 사례이다.

⑤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 중,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이다.

- 06** 매체 자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객관적 사실과 매체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2 존중하는 언어생활

본책 176~189쪽

활동 학습

- 1 ③ 2 ⑤ 3 ③ 4 ② 5 ② 6 ② 7 ①
8 ③ 9 ③ 10 지아와 싸운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지아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11 ⑤ 12 ② 13 ③ 14 ①
15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된다. 언어폭력의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16 비수, 유리 파편(유리 조각) 17 ④ 18 ② 19 ③ 20 ① 21 언어예절 22 ②

- 1 S# 1에서 은주는 선을 곤란하게 하려고 선이 금을 밟지도 않았는데 밟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몰아세우고 있다.

- 2 S# 40에서 보라가 선과 친구 사이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자신의 생일 모임에 초대해 주겠다고 선에게 청소를 부탁하는 보라의 행동에서 보라와 선이 친구 사이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아가 전학을 와서 선과 먼저 친해졌지만, 선을 따돌리는 보라 무리와 어울리면서 선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보라 무리가 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

② 선은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지아가 보라 무리와 함께 자신을 괴롭히자 마음이 아프다.

③ 보라 무리는 선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며 지아가 빌려준 색연필을 돌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④ 지아는 보라 무리의 편에 서서 선을 따돌리기 위해 선에게 주었던 색연필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 3 ①은 모욕적인 말을 하여 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4 가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의 낙서가 적힌 칠판을 보고, 선이 충격에 휩싸여 세차게 칠판을 지우는 모습을 통해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ㄱ). 또한 낙서를 지우는 선에게 아이 1이 “너네 아빠 진짜 알코올 중독자냐?”라고 묻는 모습에서 언어폭력이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ㄷ).

- 5 S# 64에서 지아는 “왕따면 왕따답게 혼자 놀 것이지.” 등과 같이 편견을 가지고 선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충고를 해 줄 수 있다.

- 6 답임 선생님은 잘못을 꾸짖으며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지아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 7 S# 65에서는 선이 지아의 과거와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너 저번 학교에서도 그래서 왕따 당한 거지? 당할 만하네.”와 같이 지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S# 65에서 선은 지아가 예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비밀을 친구들 앞에서 폭로하고 있다.

③ S# 70에서 태연은 금을 밟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지아에게 맨날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④ S# 70에서 은주는 지아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지아가 금을 밟았다고 모함하고 있다.

⑤ S# 70에서 지아는 친구들이 금을 밟았다고 모함하자 처음에는 반박하다가 당황하여 정말 나가야 하는지 주저했다.

8 S# 65에서 선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지아의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써(ㄱ),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ㄴ).

9 S# 70에서 선은 지아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록 지아와 싸운 상태이지만 용기를 내어 지아의 편을 들고 있다.

10 선은 지아와 싸운 후 아직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모함을 당하는 지아를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아의 편을 들고 당황하였다.

11 갈등 관계에 있는 선과 지아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 대화를 피하기만 해서는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12 언어폭력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어폭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거나 친구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 선과 지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 이때 상대의 잘못을 다시 언급하거나 상대의 탓을 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14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5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16 말이 상대를 공격하여 해할 수 있는 '비수'가 된다는 표현이나, 말이 '유리 파편'처럼 상대의 가슴에 꽂힌다는 표현은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17 말을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을 의미한다.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말은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18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모른 척 넘어갔는가?'는 언어생활을 성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상대방이 실수나 잘못을 한 경우에는 놀리거나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알려 주는 것이 적절하다.

19 감사하는 말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⑤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말로는 욕설이나 비속어,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말, 다른 사람을 헐담하는 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 차별이나 편견이 담긴 표현,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놀리거나 비방하는 말 등이 있다.

20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감출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21 '언어 예절'은 언어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나 질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참고 자료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말하는 목적과 주제
- 상대의 신분, 연령 등
- 상대와의 친밀한 정도나 관계 등
- 시간이나 장소, 분위기 등의 상황

22 서로 존중하는 언어생활을 하면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ㄷ).

독집예상문제

본책 190~193쪽

- | | | |
|----------------|-------------------------|--|
| 01 ⑤ | 02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등 | 03 ⑤ |
| 04 ② | 05 ① | 06 ⑤ |
| 07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 | 08 ⑤ | |
| 09 ③ | 10 ③ | 11 상대방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단체 대화방에서 퍼뜨렸기 때문이다. |
| 12 ④ | 13 ⑤ | 14 말은 상대방에게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인 폭력과 같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 15 ⑤ | 16 ③ | |

01 (가)에서 지아가 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보라 무리는 선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

② (가)에서 선은 보라 무리와 같은 색의 매니큐어를 바른 지아의 손톱을 보고, 보라 무리에 속하여 함께 자신을 따돌리는 지아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③, ④ 보라는 친구들과 함께 몰려와서 지아가 색연필을 자신에게 준 것이라는 선의 말을 무시한 채 색연필을 돌려달라고 선을 압박하고 있다.

02 (나)에는 '우리 반 촌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선을 비하하고, 선의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폭력이 나타난다. 이를 보고 선이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을 통해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은 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한 말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친구끼리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수치심, 모멸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언어폭력이 된다.

04 ㉡에서 선은 보라 무리의 압박에 못 이겨 색연필을 돌려준 것이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여 색연필을 돌려준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지아는 선을 따돌리기 위해 선에게 준 색연필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③ ㉢에서 지아가 손톱에 보라 무리와 같은 색의 매니큐어를 바른 것을 통해 지아가 보라 무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보라는 선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고 있다.

⑤ ㉤에서 선의 아버지를 모욕감과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05 (나)에서 지아가 선이 한 말을 듣고 당황하며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선의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

06 (나)에서 선은 지아가 예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그래 봤자 아무도 너 안 좋아해! 거짓말하는 애를 누가 좋아해?"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말하여 지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 오답 풀이 | ㉡. (나)에서 지아는 영국에도 가 본 적 없고, 엄마도 영국에 안 계시는 것 아니냐는 선의 말에 화를 내고 있을 뿐,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 (나)에서 지아가 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이 지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07 선과 지아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하는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08 선은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금을 밟았다고 모함을 당하는 지아를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아의 편을 들게 되는데, 이는 지아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9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최근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였으나, 드라마가 청소년의 언어생활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②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언어폭력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쏟아 내는 방식, 대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대화방에 초대하여 위협하는 방식, 거짓 정보나 소문, 악의적인 이야기 등을 메시지로 퍼뜨리는 방식 등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10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오답 풀이 | ㉡. 이 글에서는 주로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상대가 대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유형 중 하나이다.

11 <보기>의 ㉠은 단체 대화방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근거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12 이 글은 "말이 비수가 된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 말의 폭력성을 알리고, 말의 영향력을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 "등에 비수를 꽂는다."라는 표현은 상대를 배신하거나 죽이는 것을 뜻한다.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표현은 "말이 비수가 된다."이다.

14 비수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날카로운 짧은 칼로, 이 글에서는 최근 나쁜 댓글이나 비난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 진짜 비수가 되어 상대의 숨을 끊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말로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16 '나 전달법'은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ㄱ)에 대한 자신의 감정(ㄴ)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의 기대(ㄷ)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밝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ㄴ, ㄷ. 공격이나 비방은 '너'를 주어로 표현하는 '너 전달법'과 관련 있다.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94~195쪽

01 ④ 02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3 지아가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지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04 ④ 05 ④ 06 ⑤ 07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반면에,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

08 ④

01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선과 지아는 크게 대립하고 있을 뿐, 선이 지아를 가엾게 여기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선이 지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으므로, 선이 지아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지아가 선에게 "왕따 주제에!"라고 말한 것을 통해 선이 학급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 선과 지아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크게 대립하고 있다.

⑤ (나)에서 선이 "예전 학교에서 완전 심한 왕따였더라?"라고 말한 것을 통해 지아가 예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에서 선과 지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 기준	확인 ☒
말을 듣는 사람과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각각 바르게 썼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에서 선은 지아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비밀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지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4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청소년 중에서도 온라인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05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가해자에게 언어생활을 성찰할 기회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06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어를 설정하거나(ㄴ), 가상 공간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ㄷ)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ㄴ.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문제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

ㄷ.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폭력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전달하여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문제 상황의 해결 여부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썼다.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08 ㉠을 통해 '나 전달법'은 '상황 - 감정 - 기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④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모자가 사라져서(상황) - 깜짝 놀랐어.(감정) - 앞으로는 미리 얘기를 하고 빌려 가면 좋겠어.(기대)'와 같이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상황과 감정만 말하고 있으며, 기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⑤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이다.

③ '너'를 주어로 하고 있으며, 상황과 기대만 말하고 있을 뿐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96~199쪽

- 01 ⑤ 02 ⑤ 03 생산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수용자는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4 ① 05 ⑤ 06 ② 07 ② 08 가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선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여 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기 때문이다. 09 ⑤ 10 ③ 11 ⑤ 12 ④

01 (가)를 통해 대중매체는 많은 자본(㉠)으로 하나의 매체 자료를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분업 및 협업(㉡)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개인 또는 적은 인원이 작업함을 알 수 있다.

02 (가)에서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대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여행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여행 전문 방송가인 나 무별의 방송을 공유해 주려는 모습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의 수용자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임을 알 수 있다.

03 매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 매체를 바르게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용자는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4 <보기>는 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된 사례로,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 등을 전수해 주는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 준다.

05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폭로하여 관련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 사례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사례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② 매체가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 사례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③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 사례로, 매체의 긍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④ 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06 (가)에서 선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7 (나)에서 가족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낙서를 보고 충격에 휩싸인 선의 모습을 통해 언어폭력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ㄱ)을 알 수 있고, 낙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되묻는 아이들을 통해 언어폭력이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지아의 모습을 통해 언어폭력이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ㄷ)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ㄷ. (나)와 (다)에서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선이고 가해자는 보라 무리임이 드러나므로, 언어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ㄹ. (나)와 (다)에서 언어폭력이 가해자가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8 ㉠은 선의 아빠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를 보고 선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따라서 ㉠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09 이 글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ㄱ).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ㄴ),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ㄷ).

| 오답 풀이 | ㄴ.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반드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ㄷ.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보다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12 제시된 글은 말을 비수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폭력 중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주는지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